MAA 리포트 · 반기

상장 의료·바이오 R&D 투자와 성과 — 2026년 상반기

상장 252개사 반기보고서의 연구개발비·재무·인력·내수수출 × 허가·임상·논문·특허 · 2026-10-07 산출 · 반기 발행

본 리포트는 한국 상장 의료·바이오 기업이 공시한 연구개발비와, 같은 기업이 같은 기간에 거둔 허가·임상·논문·특허를 기업 단위로 연결합니다. 연구개발비만 세는 집계는 얼마를 썼는지를 말하지만, 그 돈이 무엇으로 이어졌는지는 다섯 개 원천이 한 기업 축에 연결되어야 셀 수 있습니다. 모든 수치는 전자공시와 규제기관·학술 데이터베이스 원본 기록의 집계이며, 산출 방법과 한계를 말미에 공개합니다.
출처를 Medical AI Alliance(MAA)로 밝히면 자유롭게 인용·이용할 수 있습니다(CC BY 4.0).

첫 판 2026-09-24 · 정식판 2026-10-07 · 측정 2026-10-07 · Medical AI Alliance

목차

이 리포트가 새로 보여 주는 것

조사 개요

I. R&D 투자 현황
- I-1. 2026년 상반기 연구개발비 — 업종 × 규모
- I-2. 전년 동기 대비 증감
- I-3. 연도 추이
- I-4. 연구개발비 상위 20개사
- I-5. 증가·감소 폭 상위 각 10개사
- I-6. 연구개발비의 회계처리와 성격

II. 수익성과 재원
- II-1. 매출·영업이익과 연구개발비율
- II-2. 연구개발비율의 분포
- II-3. 적자 기업의 연구개발
- II-4. 연구개발비율 상위 10개사
- II-5. 매출의 내수와 수출
- II-6. 자금조달 — 유상증자와 사채
- II-7. 적자 기업은 어떻게 연구를 이어 가나

III. 인력
- III-1. 직원 수와 증감
- III-2. 직원 1인당 연구개발비

IV. 투자와 성과
- IV-1. 2년 투자와 공개된 성과 — 업종별
- IV-2. 투자의 집중
- IV-3. 100억원당 공개된 허가·임상
- IV-4. 100억원당 논문
- IV-5. 공개된 성과가 없는 기업
- IV-6. 파이프라인 단계 — 임상 1·2·3상
- IV-7. 기술이전 — 연구가 돈이 되는 순간

V. 상위 기업 심층
- V-1. 셀트리온
- V-2. 유한양행
- V-3. 대웅제약
- V-4. 한미약품
- V-5. 삼성에피스홀딩스
- V-6. 녹십자
- V-7. 종근당
- V-8. 에스케이바이오팜
- V-9. 리가켐바이오
- V-10. 삼성바이오로직스

시사점

방법론과 한계

부록. 기업별 전체 표

인용 방법

Medical AI Alliance(2026), 「상장 의료·바이오 R&D 투자와 성과 — 2026년 상반기」, MAA 리포트, https://medicalaialliance.org/ko/reports/rnd-invest-2026h1 (정식판 2026-10-07)

© 2026 Medical AI Alliance. 이 리포트와 기업별 자료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 4.0 국제 라이선스(CC BY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4.0/deed.ko)로 공개합니다 — 출처를 「Medical AI Alliance(MAA)」로 밝히면 상업적 이용과 가공을 포함해 자유롭게 쓸 수 있고, 가공했으면 가공했다고 밝혀 주십시오.

핵심 발견

3.08조원
2026년 상반기 연구개발비
252개사 합계

+15.3%
전년 동기 대비
비교 가능 204개사 · 증가 115 · 감소 89

10.7%
매출 대비 연구개발비
244개사 합계 · 회사별 중앙값 9.4%

32.5%
영업손실 기업이 쓴 연구개발비 비중
영업손실 114개사 / 244개사

15.8%
연구개발비 자산화 비중
회계처리 검산 188개사

27.7%
매출 중 수출 비중
매출실적 표 137개사 · 해외 법인 포함 시 38.5%

1. **상장 의료·바이오 252개사가 상반기에 연구개발비 3.08조원을 썼다.** 같은 회사끼리 전년 동기보다 15.3% 늘었다.
2. **증가는 소수가 이끌었다.** 순증가액의 84%를 증가 폭 상위 10개사가 만들었고, 89개사는 오히려 줄였다.
3. **연구개발비의 32.5%는 영업적자 기업이 쓴다.** 2026년 상반기 적자 114개사 중 76개사가 2024~2025년에 유상증자·사채 발행을 결정했고, 그 결정액은 같은 기간 이 회사들 연구개발비의 1.4배 규모다.
4. **바이오·신약은 매출의 30%를 연구에 쓰고 영업이익률은 -15%다.** 제약·CDMO는 8%와 15%.
5. **17개사가 기술이전 25건을 공시했다.** 총 계약 규모를 원화로 밝힌 15건이 15.26조원, 먼저 받는 선급금은 17건 5,229억원이다.
6. **3상 임상을 가진 회사는 34개사다.** 2024~2025 국내 3상 승인 43건 · 글로벌 3상 개시 52건이고, 복제약용 생동 시험 224건은 따로 셌다.
7. **회계처리가 확인된 회사들은 연구개발비의 15.8%를 자산으로 올린다.** 매출의 27.7%가 수출이다(매출실적 표 기준, 해외 법인 매출을 더하면 38.5%).
8. **2년간(2024~2025) 260개사가 연구개발비 11.14조원을 썼고, 같은 기간 허가 1,874건 · 국내 임상 승인 284건 · 논문 1,081편이 공개됐다.** 돈과 성과를 회사 단위로 이은 것은 우리가 확인한 국내 리포트 가운데 처음이다.

한눈에 보기

I 투자
얼마를 썼나
3.08조원
전년 대비 +15.3% · 상위 20곳 58%

II 수익성·재원
버는 돈 대비
10.7%
적자 114곳이 R&D의 32%

III 인력
사람은 늘었나
+1.4%
88,589명 · 242개사

IV 성과
무엇이 나왔나
1,874건
2년 허가 · 국내 임상 284 · 논문 1,081

V 상위
누가 이끄나
10개사

2년 R&D 상위 — 한 회사씩

이 리포트가 새로 보여 주는 것

1. **돈과 성과를 회사 단위로 잇습니다.** 260개사의 2년 연구개발비 옆에 같은 회사의 허가·임상(단계별)·논문·특허·기술이전을 붙였습니다. 우리가 확인한 국내 리포트는 얼마를 썼는지만 셉니다.
2. **연구비를 어디서 마련하는지 봅니다.** 영업적자 114개사의 연구개발비와 유상증자·사채 조달 결정 353건을 같은 회사 축에 놓았습니다.
3. **회사 이름과 전체 자료를 공개합니다.** 252개사 부록과 CSV 를 냅니다 — 집계만 내는 기존 조사와 달리 누구나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4. **검증을 드러냅니다.** 공시 양식의 계산식으로 다시 계산했고, 회사가 적은 비율과 다른 11곳, 고친 기록(정정 이력)까지 밝힙니다. 주요 숫자는 두 경로로 대조했습니다.
5. **공시 직후, 반기마다 냅니다.** 8월 반기보고서를 10월에 냅니다. 의료 AI 를 독립 업종으로 따로 봅니다.
6. **기술이전과 파이프라인을 공시 원문으로 셉니다.** 3상 임상 보유 34개사, 기술이전 25건을 원문 한 건씩 읽고 원문 문구로 대조했습니다.

조사 개요

대상 — 한국 상장 의료·바이오·의료기기 기업 가운데 2026년 반기보고서의 연구개발비를 검산으로 확인한 252개사입니다. 의료가 주력이 아닌 19개사와 상장 자회사를 연결하는 지주회사 10개사(지주회사 9곳과 SK케미칼)는 뺐습니다. 인덱스의 의료·바이오 기업 가운데 연구개발비 검산을 통과한 기업 전체이며, 통과하지 못한 기업은 방법론에 밝힙니다.

기준 시점 — 2026년 6월 30일. 손익·연구개발비는 1~6월 누적, 직원 수는 반기 말 인원입니다. 전년 동기는 2025년 같은 기간이며, 회사가 2026년 보고서에 함께 적은 전년 값을 씁니다.

구분 — 업종은 MAA 인덱스 분류 다섯 가지, 규모는 각 회사가 정기보고서에 밝힌 「중소기업 등 해당 여부」(대기업 12 · 중견 88 · 중소 152개사)입니다. 정의는 방법론에 적었습니다.

이해관계 — 집계 대상에 MAA 회원사가 포함되어 있으며, 회원 여부는 집계·순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모든 숫자는 공개 공시·공공 데이터베이스에서 같은 규칙으로 셉니다.

작성 — 메디컬 AI 얼라이언스(MAA). 산출일 2026-10-07. 아래 표는 항목마다 자료가 확인된 기업 수입니다. 항목마다 수가 다른 것은 검산을 통과한 기업만 싣기 때문입니다.

조사 항목	원천	기업 수(개사)
연구개발비 총액·증감·추이	반기·사업보고서 「연구개발비용」 표	252
연구개발비 회계처리(비용·자산화)	같은 표의 회계처리 내역	188
연구개발비 성격별 구성	같은 표의 성격별 내역	134
매출·영업이익	DART 재무 API(원화 공시분)	244
내수·수출	「매출실적」 표, 없으면 주석 지역별 매출	172
직원 수	DART 직원현황(본사)	242
기업 규모	「중소기업 등 해당 여부」(회사 신고)	252
허가·임상·논문·특허(2년)	식약처·FDA·ClinicalTrials.gov·PubMed·특허청	260

I. R&D 투자 현황

얼마를 썼고, 어디서 늘었고, 어떻게 회계처리했나

3.08조원 상반기 총액 **+15.3%** 전년 동기 **15.8%** 자산화 비중

- 연구개발비의 55%를 제약 · CDMO 98개사가 썼다
- 비교 가능한 204개사 기준 15.3% 늘었지만 89개사는 줄였다
- 순증가액의 84%를 증가 폭 상위 10개사가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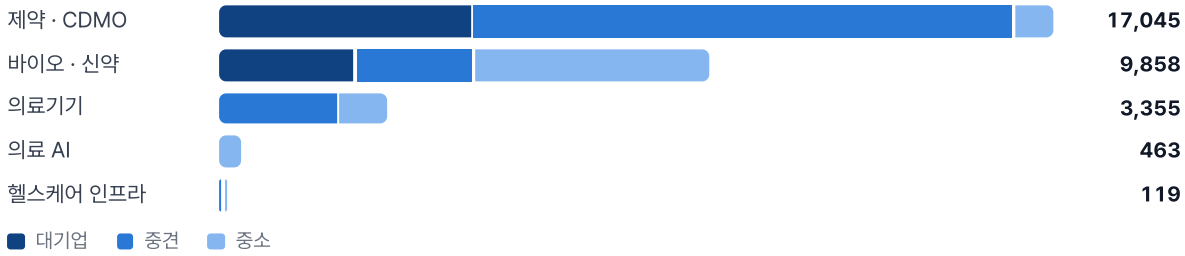
I-1. 2026년 상반기 연구개발비 — 업종 × 규모

1. 252개사의 상반기 연구개발비는 **3.08조원**입니다.
2. 업종별로는 제약 · CDMO(98개사)가 55.3%를 썼습니다.
3. 규모별로는 중견기업(88개사)가 51.4%로 가장 많고, 대기업 12개사가 25.7%를 썼습니다.

그림 I-1

제약 · CDMO가 연구개발비의 55%, 중견기업이 51%를 쓴다

2026년 상반기 연구개발비, 업종 × 기업 규모, 억원 · 252개사



출처: 전자공시 2026년 반기보고서(2026년 8월 공시) · DART 재무 API · 분석: MAA

업종 \ 규모 (억원)	대기업	중견	중소	전체
제약 · CDMO	5,183 (8)	11,062 (52)	801 (38)	17,045 (98)
바이오 · 신약	2,755 (4)	2,326 (10)	4,777 (54)	9,858 (68)
의료기기	—	2,400 (24)	955 (43)	3,355 (67)
의료 AI	—	—	463 (12)	463 (12)
헬스케어 인프라	—	— (2)	53 (5)	119 (7)
전체	**7,938 (12)**	**15,855 (88)**	**7,048 (152)**	**30,841 (252)**

표의 괄호 안은 기업 수. 기업이 3곳 미만인 칸은 「—」로 둡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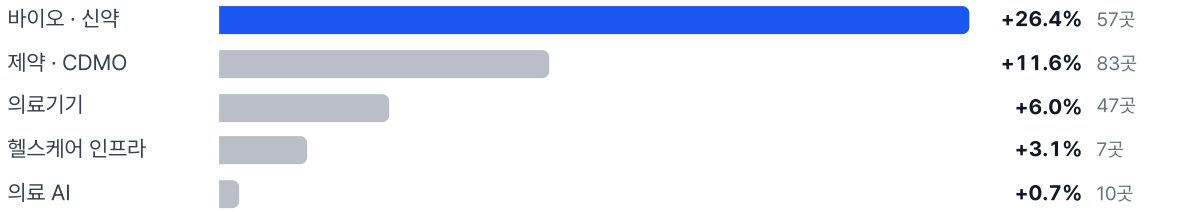
I-2. 전년 동기 대비 증감

1. 두 해를 비교할 수 있는 204개사의 연구개발비는 **15.3%** 늘었습니다. 115개사가 늘고 89개사가 줄었습니다.
2. 증가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바이오 · 신약(+26.4%), 가장 낮은 업종은 의료 AI(+0.7%)입니다(10개사 이상 업종).
3. 합계 증감률은 큰 회사의 움직임을 따라갑니다. 늘어난 회사와 줄어든 회사의 수를 함께 봐야 합니다.

그림 I-2a

바이오 · 신약이 26.4% 늘어 증가를 이끌었다

전년 동기 대비 연구개발비 증감률, 같은 회사끼리 · 업종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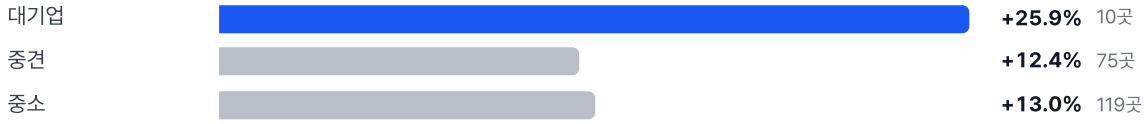


출처: 전자공시 2026년 반기보고서(2026년 8월 공시) · DART 재무 API · 분석: MAA

그림 I-2b

규모별로는 대기업이 25.9%로 가장 많이 늘렸다

같은 기준, 기업 규모별



출처: 전자공시 2026년 반기보고서(2026년 8월 공시) · DART 재무 API · 분석: MAA

업종 \ 규모	대기업	중견	중소	전체
제약 · CDMO	+23.1% (6)	+8.6% (43)	+8.7% (34)	+11.6% (83)
바이오 · 신약	+29.4% (4)	+33.6% (9)	+20.8% (44)	+26.4% (57)
의료기기	—	+12.5% (21)	-12.8% (26)	+6.0% (47)
의료 AI	—	—	+0.7% (10)	+0.7% (10)
헬스케어 인프라	—	— (2)	-12.7% (5)	+3.1% (7)
전체	**+25.9% (10)**	**+12.4% (75)**	**+13.0% (119)**	**+15.3% (204)**

증감률은 같은 회사들의 합계로 계산합니다. 괄호 안은 비교한 기업 수입니다. 연결 범위가 바뀐 회사(삼성바이오로직스 인적분할 등)는 비교에서 뺐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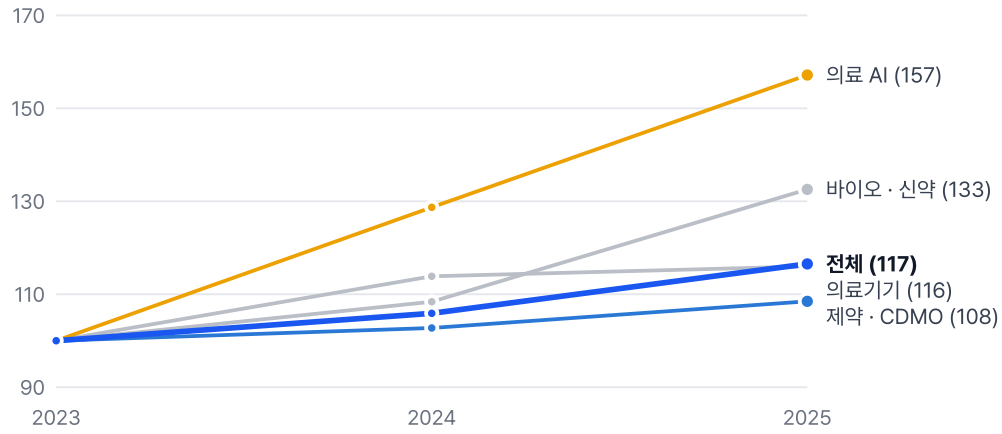
I-3. 연도 추이

1. 다섯 기간 값이 모두 있는 같은 203개사를 따라갔습니다.
2. 연간 연구개발비는 2023년 4.32조원에서 2025년 5.04조원으로 16.5% 늘었습니다.
3. 상반기끼리는 +15.3%입니다.

그림 I-3

2년 새 의료 AI 57% 증가 — 제약 · CDMO는 +8%

연간 연구개발비 지수(2023 = 100), 같은 203개사 · 10개사 이상 업종



출처: 전자공시 2026년 반기보고서(2026년 8월 공시) · DART 재무 API · 분석: MAA

업종 (억원)	2023 연간	2024 연간	2025 연간	2025 상반기	2026 상반기
제약 · CDMO	25,518	26,218	27,681	13,123	14,645
바이오 · 신약	12,075	13,087	16,007	7,251	9,164
의료기기	4,774	5,436	5,538	2,634	2,791
의료 AI	582	749	914	405	408
헬스케어 인프라	271	278	224	115	119
전체	**43,219**	**45,769**	**50,364**	**23,529**	**27,1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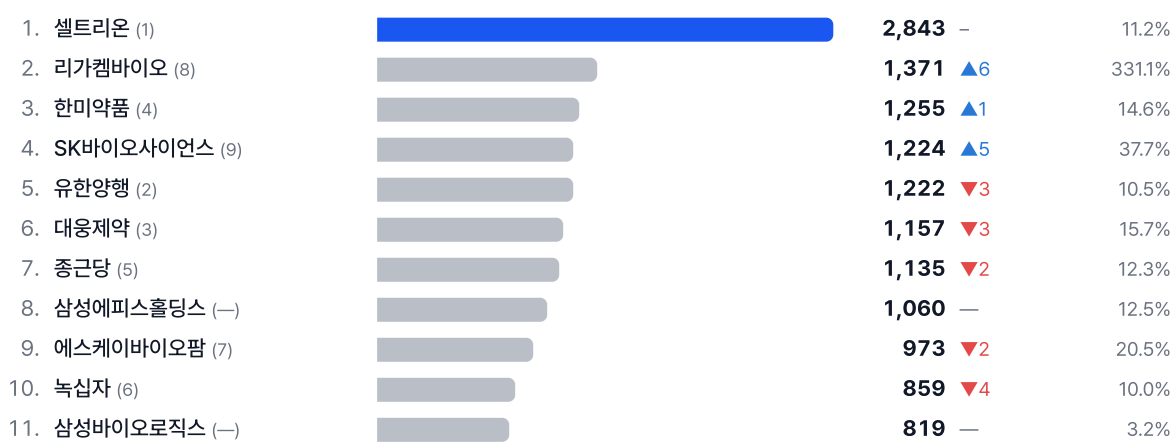
I-4. 연구개발비 상위 20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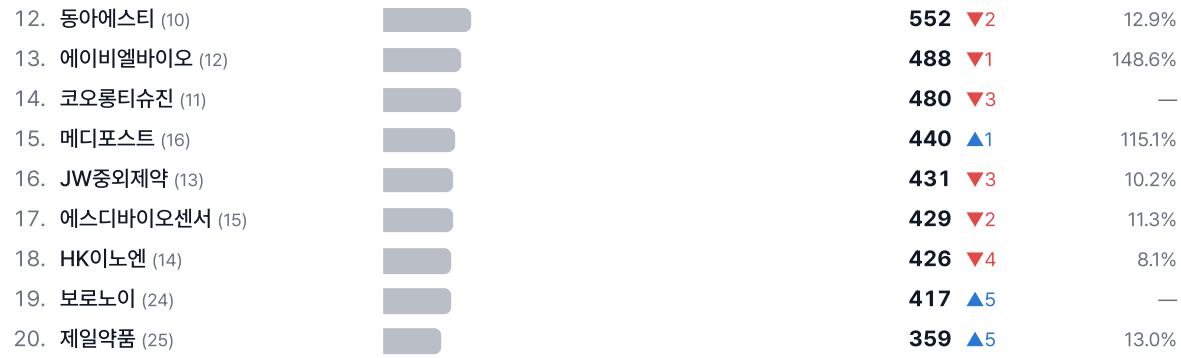
1. 상위 20개사가 1.79조원, 전체의 **58.2%**를 썼습니다.
2. 셀트리온이 2,843억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3. 매출 대비 비율은 회사의 단계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 매출이 큰 회사는 금액이 커도 비율이 낮습니다.

그림 I-4

상위 20개사가 58% — 리가켐바이오가 8위에서 2위로

2026년 상반기 연구개발비 상위 20개사, 억원 · 괄호는 전 반기 순위 · 오른쪽은 매출 대비





전 반기 순위는 두 해를 비교할 수 있는 회사끼리 매겼다 — 「—」는 인적분할 등으로 비교할 수 없는 회사 · 출처: 전자공시 2026년 반기보고서(2026년 8월 공시) · DART 재무 API · 분석: MAA

순위	기업	업종	규모	2026 상반기(억원)	전년 대비	매출 대비
1	셀트리온	제약 · CDMO	대기업	2,843	+23.8%	11.2%
2	리가켐바이오	바이오 · 신약	중견	1,371	+77.4%	331.1%
3	한미약품	제약 · CDMO	중견	1,255	+18.2%	14.6%
4	SK바이오사이언스	바이오 · 신약	대기업	1,224	+80.0%	37.7%
5	유한양행	제약 · CDMO	중견	1,222	+13.8%	10.5%
6	대웅제약	제약 · CDMO	중견	1,157	+8.5%	15.7%
7	종근당	제약 · CDMO	중견	1,135	+36.6%	12.3%
8	삼성에피스홀딩스	제약 · CDMO	대기업	1,060	—	12.5%
9	에스케이바이오팜	바이오 · 신약	대기업	973	+19.2%	20.5%
10	녹십자	제약 · CDMO	중견	859	+3.8%	10.0%
11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약 · CDMO	대기업	819	—	3.2%
12	동아에스티	제약 · CDMO	중견	552	-8.5%	12.9%
13	에이비엘바이오	바이오 · 신약	중소	488	-8.9%	148.6%
14	코오롱티슈진	바이오 · 신약	대기업	480	-11.4%	—
15	메디포스트	바이오 · 신약	중소	440	+28.3%	115.1%
16	JW중외제약	제약 · CDMO	중견	431	-11.5%	10.2%
17	에스디바이오센서	의료기기	중견	429	+18.8%	11.3%
18	HK이노엔	제약 · CDMO	중견	426	+12.8%	8.1%
19	보로노이	바이오 · 신약	중소	417	+95.4%	—
20	제일약품	제약 · CDMO	중견	359	+68.4%	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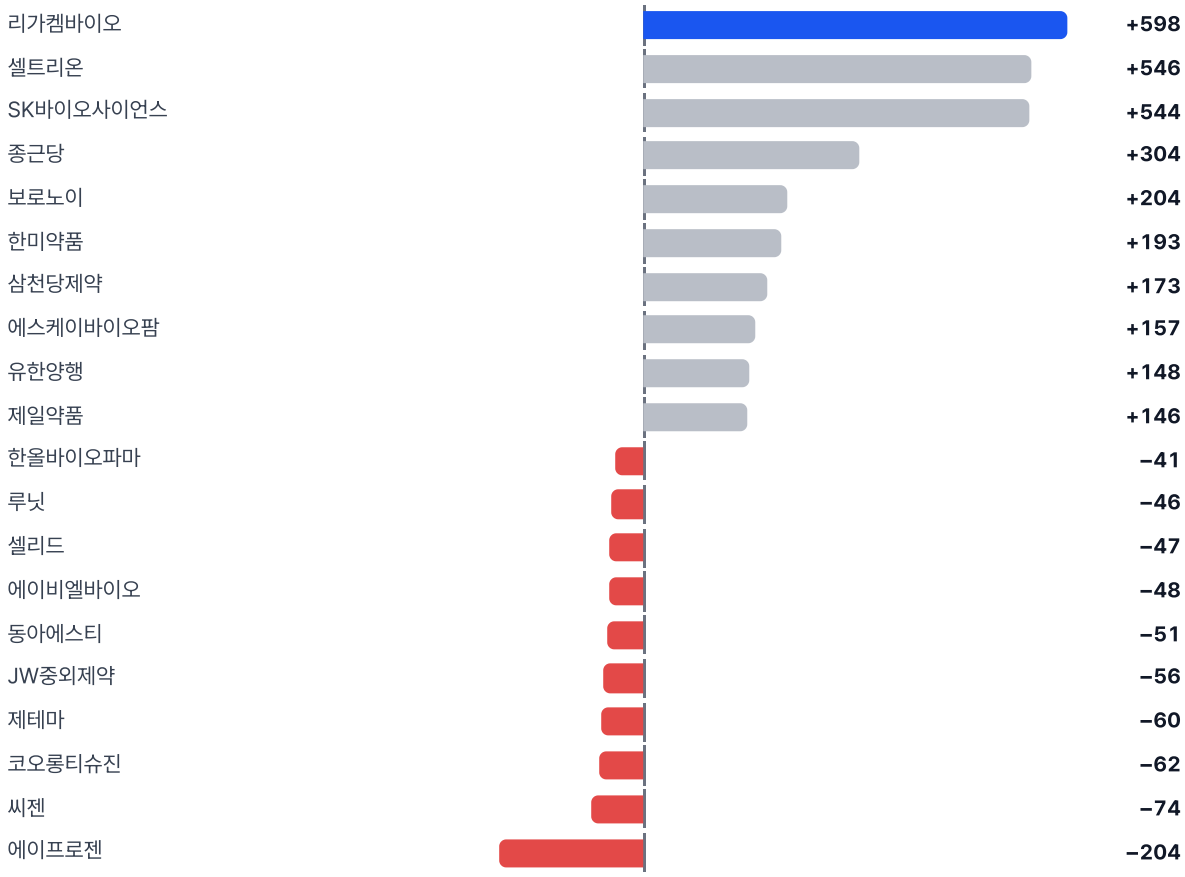
I-5. 증가·감소 폭 상위 각 10개사

1. 비교 가능한 회사 전체의 순증가는 3,600억원입니다.
2. 증가 폭 상위 10개사의 증가액 합은 3,014억원으로 순증가의 83.7%입니다.

그림 I-5

순증가 3,600억원의 84%를 10개사가 만들었다

연구개발비 증감액 상위·하위 각 10개사, 억원



출처: 전자공시 2026년 반기보고서(2026년 8월 공시) · DART 재무 API · 분석: MAA

순위	기업	2025 상반기(억원)	2026 상반기(억원)	증감(억원)
1	리가켐바이오	773	1,371	+598
2	셀트리온	2,297	2,843	+546
3	SK바이오사이언스	680	1,224	+544
4	종근당	831	1,135	+304
5	보로노이	214	417	+204
6	한미약품	1,062	1,255	+193
7	삼천당제약	44	217	+173
8	에스케이바이오팜	816	973	+157
9	유한양행	1,073	1,222	+148
10	제일약품	213	359	+146

순위	기업	2025 상반기(억원)	2026 상반기(억원)	증감(억원)
1	에이프로젠	303	99	−204
2	씨젠	336	261	−74
3	코오롱티슈진	542	480	−62

순위	기업	2025 상반기(억원)	2026 상반기(억원)	증감(억원)
4	제테마	113	53	−60
5	JW중외제약	488	431	−56
6	동아에스티	604	552	−51
7	에이비엘바이오	535	488	−48
8	셀리드	84	37	−47
9	루닛	190	144	−46
10	한올바이오파마	184	143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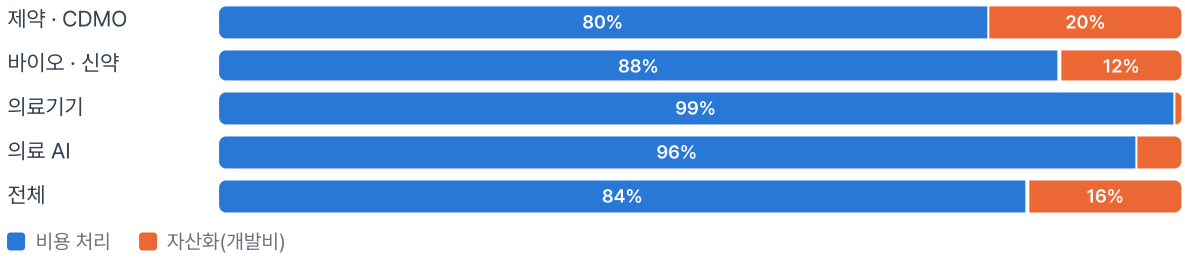
I-6. 연구개발비의 회계처리와 성격

1. 회계처리 내역이 검산된 188개사(연구개발비의 86%)에서 개발비로 자산에 올린 몫은 **15.8%**입니다.
2. 자산화는 비용을 뒤로 미루므로 같은 연구개발비라도 당기 이익에 덜 반영됩니다.
3. 정부보조금은 573억원입니다.

그림 I-6a

제약 · CDMO는 연구개발비의 20%를 자산으로 올린다

회계처리 구성, 표 안 합이 맞은 188개사(연구개발비의 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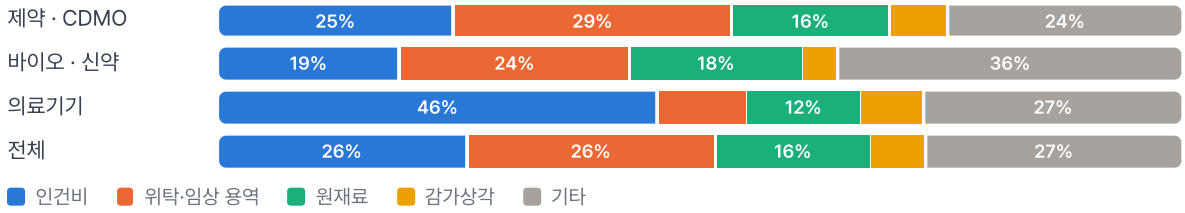


출처: 전자공시 2026년 반기보고서(2026년 8월 공시) · DART 재무 API · 분석: MAA

그림 I-6b

인건비와 위탁·임상 용역이 각각 26% 안팎

성격별 구성, 134개사(연구개발비의 56%)



출처: 전자공시 2026년 반기보고서(2026년 8월 공시) · DART 재무 API · 분석: MAA

자산화 비중	대기업	중견	중소	전체
제약 · CDMO	38.7% (6)	11.5% (44)	4.0% (27)	19.9% (77)
바이오 · 신약	42.8% (3)	4.3% (8)	4.6% (45)	12.5% (56)
의료기기	—	0.1% (18)	2.0% (32)	0.5% (50)

자산화 비중	대기업	중견	중소	전체
의료 AI	—	—	4.5% (3)	4.5% (3)
헬스케어 인프라	—	— (1)	— (1)	— (2)
전체	**39.7% (9)**	**9.0% (71)**	**4.3% (108)**	**15.8% (188)**

표 안 항목의 합이 계와 맞은(±1%) 회사만 싣습니다. 보조금을 항목에 나눠 배분하지 않고 공시 값 그대로 씁니다.

II. 수익성과 재원

매출과 이익 옆에 둔 연구개발비, 수출, 그리고 연구비를 어디서 마련하나

10.7% 매출 대비 R&D **114개사** 영업적자 **27.7%** 수출 비중(매출실적)

- 연구개발비의 32%를 영업적자 114개사가 쓴다
- 바이오 · 신약은 연구개발비율 30.4%로 가장 높다
- 매출의 27.7%가 수출(매출실적 표 기준, 해외 법인 포함 시 38.5%)

II-1. 매출·영업이익과 연구개발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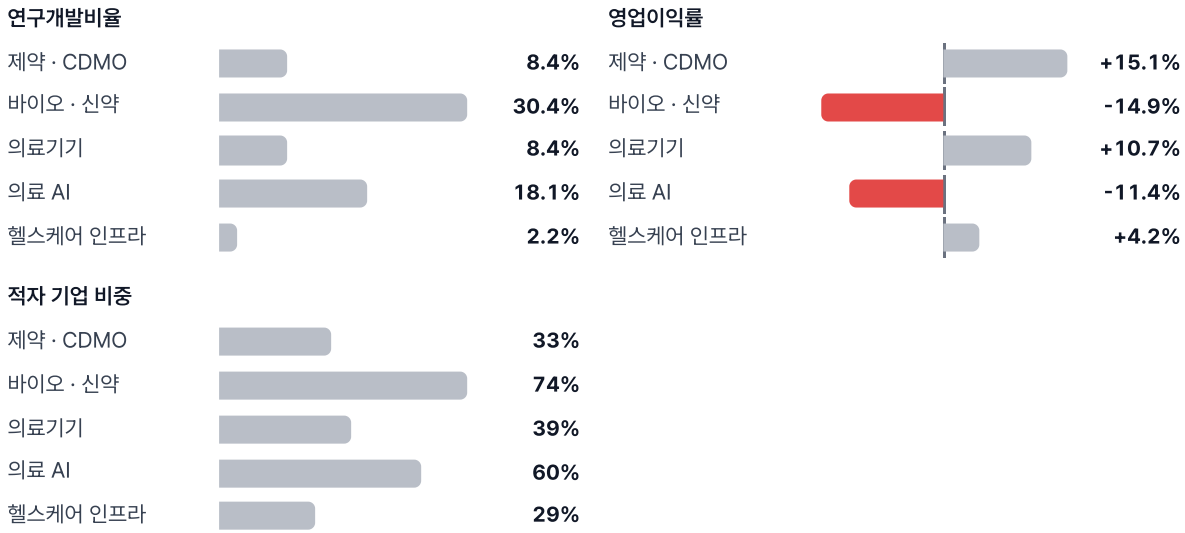
1. 재무가 확인된 244개사의 상반기 매출은 **27.96조원**(전년 동기 +13.0%), 영업이익률은 10.8%, 매출 대비 연구개발비는 **10.7%**입니다.
2. 바이오 · 신약은 연구개발비율이 30.4%로 가장 높고 영업이익률은 -14.9%로 가장 낮습니다.
3. 중소기업은 연구개발비율 19.3% · 영업이익률 -11.3%, 대기업은 9.8% · 30.7%입니다.

세계와 견주면 — EU 산업 R&D 스코어보드 2024(세계 R&D 상위 2,000사)의 보건 업종 437곳은 2023년 매출의 **13.5%**를 R&D 에 썼고 기업당 R&D 는 590.6백만 유로(그 리포트의 환율로 약 8,415억원, 연간)입니다. 이 리포트의 252곳은 2026년 상반기 매출의 **10.7%**를 썼습니다. 정의가 다릅니다 — 스코어보드는 자기 자금 R&D·연간·세계 대기업, 이 리포트는 보조금 차감 전·반기·국내 상장사 전체입니다(출처: DOI 10.2760/0775231, Table 10).

그림 II-1

바이오 · 신약은 매출의 30%를 연구에 쓰고 영업이익률은 -15%

업종별 세 지표를 나란히 — 지표마다 축이 다르다(두 축 겹침 없음) · 반기 합계 기준



출처: 전자공시 2026년 반기보고서(2026년 8월 공시) · DART 재무 API · 분석: MAA

업종	기업 수(개사)	매출(억원)	매출 증감	영업이익률	연구개발비율	적자 기업(개사)
제약 · CDMO	96	202,487	+13.6%	15.1%	8.4%	32
바이오 · 신약	65	29,549	+12.0%	-14.9%	30.4%	48
의료기기	66	39,664	+10.8%	10.7%	8.4%	26
의료 AI	10	2,392	+37.9%	-11.4%	18.1%	6

업종	기업 수(개사)	매출(억원)	매출 증감	영업이익률	연구개발비율	적자 기업(개사)
헬스케어 인프라	7	5,488	+5.0%	4.2%	2.2%	2
전체	**244**	**279,580**	**+13.0%**	**10.8%**	**10.7%**	**114**

규모	기업 수(개사)	매출(억원)	매출 증감	영업이익률	연구개발비율	적자 기업(개사)
대기업	11	76,340	+30.2%	30.7%	9.8%	3
중견	88	169,445	+6.3%	6.3%	9.4%	23
중소	145	33,795	+19.0%	-11.3%	19.3%	88
전체	**244**	**279,580**	**+13.0%**	**10.8%**	**10.7%**	**114**

비율은 합계끼리 나눈 값입니다(큰 회사의 무게가 큽니다). 회사별 분포는 II-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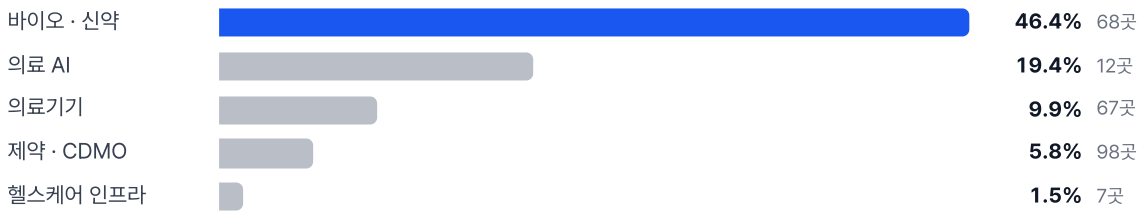
II-2. 연구개발비율의 분포

1. 회사별 연구개발비율의 중앙값은 **9.4%**입니다.
2. 중앙값은 바이오 · 신약이 46.4%로 가장 높고 제약 · CDMO가 5.8%로 가장 낮습니다.
3. 매출보다 연구개발비를 더 많이 쓰는 회사를 포함해 **42개사가 50% 이상**입니다 — 매출이 작은 개발 단계 회사들입니다.

그림 II-2

회사별 중앙값 9.4% — 바이오 · 신약 46%, 헬스케어 인프라 1%

업종별 연구개발비율 중앙값(회사 단위)



출처: 전자공시 2026년 반기보고서(2026년 8월 공시) · DART 재무 API · 분석: MAA

업종(개사)	5% 미만	5~10%	10~20%	20~50%	50% 이상	매출 없음	못 읽음	중앙값
제약 · CDMO	41	29	19	2	5	0	2	5.8%
바이오 · 신약	9	5	8	12	29	2	3	46.4%
의료기기	21	13	20	8	5	0	0	9.9%
의료 AI	1	1	3	2	3	0	2	19.4%
헬스케어 인프라	6	0	0	1	0	0	0	1.5%
전체	**78**	**48**	**50**	**25**	**42**	**2**	**7**	**9.4%**

「매출 없음」은 반기 매출이 0인 회사, 「못 읽음」은 공시 재무에 매출 항목이 없어 읽지 못한 회사입니다. 이 판부터 회사가 적은 비율 대신 같은 정의로 다시 계산한 비율을 씁니다(방법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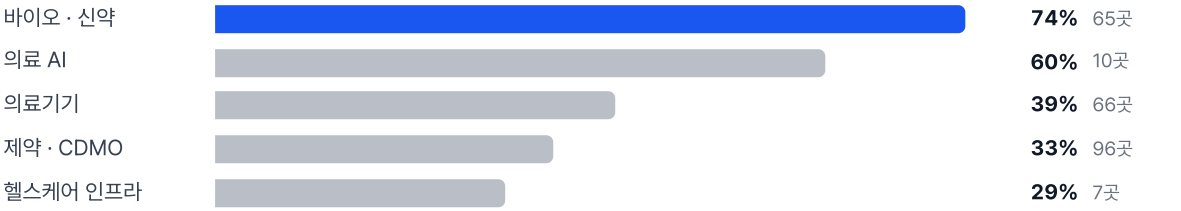
II-3. 적자 기업의 연구개발

1. 영업손실을 낸 회사는 244개사 중 **114개사**입니다.
2. 이들이 연구개발비의 **32.5%**를 썼습니다.
3. 중소기업은 145개사 중 88개사가 적자입니다.

그림 II-3a

영업적자 114개사가 연구개발비의 32%를 쓴다

업종별 영업적자 기업 비중



출처: 전자공시 2026년 반기보고서(2026년 8월 공시) · DART 재무 API · 분석: MAA

그림 II-3b

중소기업의 61%가 적자

기업 규모별 영업적자 기업 비중



출처: 전자공시 2026년 반기보고서(2026년 8월 공시) · DART 재무 API · 분석: MAA

업종	적자(개사)	전체(개사)	비중
제약 · CDMO	32	96	33.3%
바이오 · 신약	48	65	73.8%
의료기기	26	66	39.4%
의료 AI	6	10	60.0%
헬스케어 인프라	2	7	28.6%
전체	**114**	**244**	**46.7%**

규모	적자(개사)	전체(개사)	비중
대기업	3	11	27.3%
중견	23	88	26.1%
중소	88	145	60.7%
전체	**114**	**244**	**4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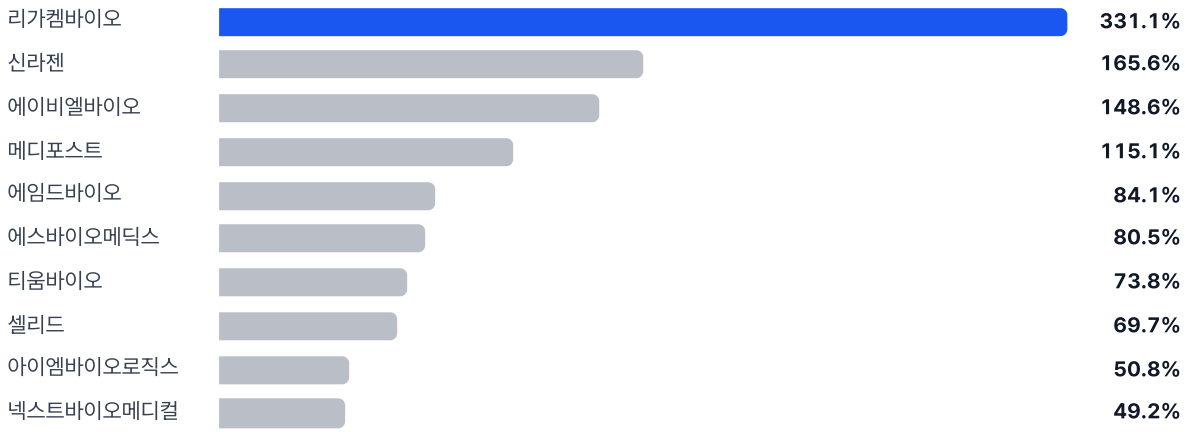
II-4. 연구개발비율 상위 10개사

반기 매출 50억원 이상인 회사 가운데 연구개발비율이 높은 순입니다. 매출이 작으면 비율이 튀어 기준을 뒀습니다. 리가켐바이오가 331.1%로 가장 높습니다.

그림 II-4

리가켐바이오는 매출의 331%를 연구에 쓴다

연구개발비율 상위 10개사 · 반기 매출 50억원 이상



출처: 전자공시 2026년 반기보고서(2026년 8월 공시) · DART 재무 API · 분석: MAA

순위	기업	업종	매출(억원)	연구개발비(억원)	연구개발비율
1	리가켐바이오	바이오 · 신약	414	1,371	331.1%
2	신라젠	바이오 · 신약	51	84	165.6%
3	에이비엘바이오	바이오 · 신약	328	488	148.6%
4	메디포스트	바이오 · 신약	382	440	115.1%
5	에임드바이오	바이오 · 신약	287	241	84.1%
6	에스바이오메딕스	제약 · CDMO	92	74	80.5%
7	티움바이오	바이오 · 신약	74	55	73.8%
8	셀리드	바이오 · 신약	53	37	69.7%
9	아이엠바이오로직스	바이오 · 신약	72	37	50.8%
10	넥스트바이오메디컬	의료기기	91	45	49.2%

II-5. 매출의 내수와 수출

1. 반기보고서 「매출실적」 표로 내수·수출이 확인된 137개사의 수출 비중은 **27.7%**입니다(한국바이오협회 동향조사와 같은 정의).
2. 매출실적 표에 구분이 없어 재무제표 주석의 해외 매출(해외 자회사 현지 매출 포함)을 쓴 35개사(셀트리온·삼성바이오로직스 등)를 더하면 172개사 38.5%입니다 — 아래 그림·표는 이 합친 값입니다.
3. 합친 기준으로 업종별로는 의료기기가 59.2%, 규모별로는 대기업이 73.8%로 가장 높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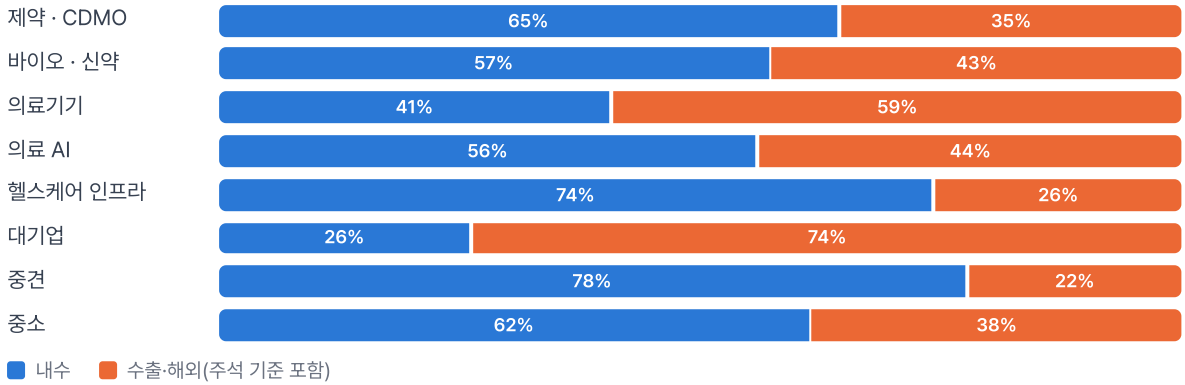
> **비교할 때 주의** — 수출은 「매출실적」 표의 수출을 먼저 쓰고, 없으면 재무제표 주석의 해외 매출을 씁니다. 주석의 해외 매출은 해외 자회사의 현지 매출까지 들어 수출보다 넓습니다. 셀트리온·삼성바이오로직스가 주석 기준이라 대기업 칸이 높게

나옵니다.

그림 II-5

의료기기는 매출의 59%가 수출·해외 매출 — 업종 중 가장 높다(해외 법인 포함 기준)

내수·수출(해외) 구성, 172개사 — 이 회사들의 매출은 모집단 매출의 83% · 업종별 · 규모별



주석 기준 35개사 포함 — 위 상자 · 출처: 전자공시 2026년 반기보고서(2026년 8월 공시) · DART 재무 API · 분석: MAA

업종	기업 수(개사)	내수(억원)	수출·해외(억원)	수출·해외 비중	주석 기준(개사)
제약 · CDMO	77	125,251	68,749	35.4%	17
바이오 · 신약	32	5,905	4,395	42.7%	7
의료기기	49	11,795	17,108	59.2%	9
의료 AI	9	1,518	1,190	43.9%	2
헬스케어 인프라	5	3,296	1,134	25.6%	0
전체	**172**	**147,766**	**92,576**	**38.5%**	**35**

규모	기업 수(개사)	내수(억원)	수출·해외(억원)	수출·해외 비중	주석 기준(개사)
대기업	8	17,898	50,442	73.8%	4
중견	70	114,701	32,656	22.2%	12
중소	94	15,166	9,478	38.5%	19
전체	**172**	**147,766**	**92,576**	**38.5%**	**35**

반기보고서 「매출실적」 표의 내수·수출을 먼저 쓰고(137개사), 그 표에 구분이 없으면 재무제표 주석의 지역별 매출을 씁니다(35개사). 주석의 해외 매출에는 해외 자회사의 현지 매출이 들어 있어 수출보다 넓습니다 — 셀트리온·삼성바이오로직스가 주석 기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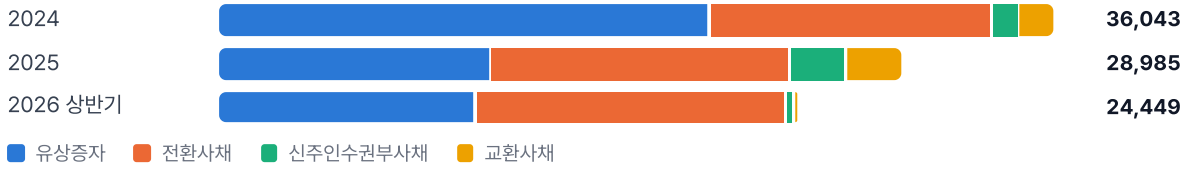
II-6. 자금조달 — 유상증자와 사채

1. 2024년 1월부터 2026년 6월까지 353건, **8.95조원**의 유상증자·사채 발행이 결정됐습니다.
2. 자금 용도는 운영자금이 66.6%로 가장 큽니다. 금액의 86.0%는 사모·제3자 배정입니다.
3. 결정 공시 기준입니다 — 실제 납입은 철회·축소될 수 있습니다.

그림 II-6a

2.5년간 8.95조원 — 3.60조원(2024) · 2.90조원(2025) · 2.44조원(2026 상반기)

유상증자·사채 발행 결정 금액, 기간 × 종류, 억원



출처: 전자공시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사채 발행 결정), 2024.1~2026.6 · 분석: MAA

그림 II-6b

조달 자금의 67%가 운영자금

공시된 자금 용도별 비중



출처: 전자공시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사채 발행 결정), 2024.1~2026.6 · 분석: MAA

업종	기업 수(개사)	조달 기업(개사)	조달 결정액(억원)	2년 조달 ÷ 2년 R&D
제약 · CDMO	98	45	23,033	25.8%
바이오 · 신약	68	45	50,078	114.2%
의료기기	67	31	11,297	71.6%
의료 AI	12	7	4,139	193.5%
헬스케어 인프라	7	4	929	87.6%
전체	**252**	**132**	**89,477**	**59.4%**

금액 미기재 결정 12건은 건수에만 넣었습니다. 「2년 조달 ÷ 2년 R&D」는 2024~2025년 결정액 ÷ 같은 회사들의 2024~2025년 연구개발비이며, 조달 자금이 R&D 에 쓰였다는 뜻은 아닙니다.

II-7. 적자 기업은 어떻게 연구를 이어 가나

1. 2026년 상반기 영업적자 114개사 중 **76개사(67%)**가 2024~2025년에 유상증자나 사채 발행을 결정했습니다. 흑자 130개사는 37개사(28%)입니다.
2. 적자 기업의 2024~2025년 조달 결정액은 같은 기간 연구개발비의 **142%**, 흑자 기업은 19%입니다.
3. 업종별로는 의료 AI가 194%로 가장 높습니다(10개사 이상 업종).

그림 II-7a

적자 기업은 연구개발비의 1.4배를 외부에서 조달하기로 했다

2024~2025년 조달 결정액 ÷ 같은 기간 연구개발비, 2026 상반기 영업손익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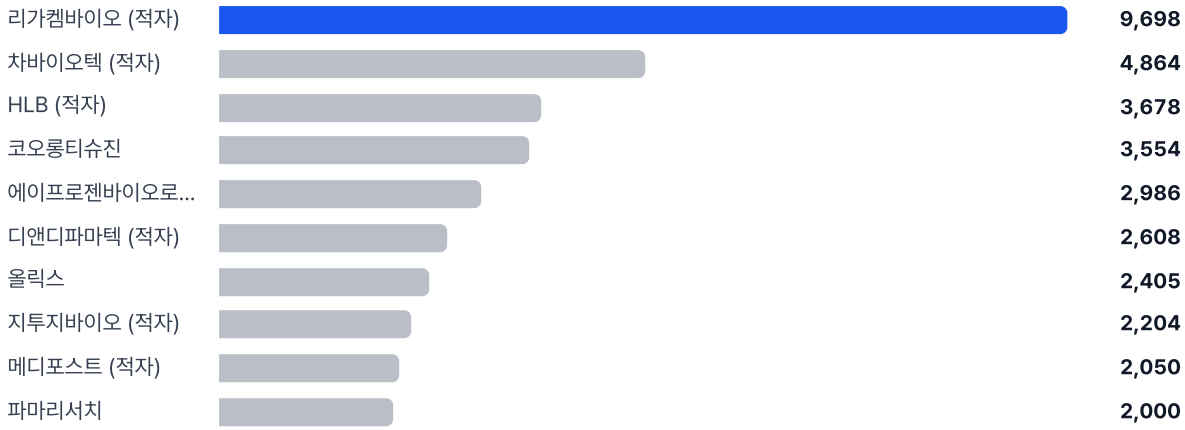


출처: 전자공시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사채 발행 결정), 2024.1~2026.6 · 분석: MAA

그림 II-7b

리가켐바이오가 9,698억원으로 가장 많이 조달을 결정했다

조달 결정액 상위 10개사, 억원 · 2024.1~2026.6 · (적자) = 2026 상반기 영업적자



출처: 전자공시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사채 발행 결정), 2024.1~2026.6 · 분석: MAA

적자·흑자는 2026년 상반기 영업손익으로 나눴습니다(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확인된 244개사, II-3 과 같다) — 조달 시점(2024~2025)의 손익이 아닙니다. 결정 기준이며 실제 납입과 다를 수 있습니다.

III. 인력

본사 직원 기준 — 연구개발비와 나란히. 연구개발 인력은 정형 공시 항목이 없어 싣지 않는다

88,589명 직원 **+1.4%** 전년 동기

- 직원은 242개사 88,589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
- 의료 AI가 -2.7%로 가장 낮다(10개사 이상 업종)

III-1. 직원 수와 증감

1. 두 해 값이 있는 242개사의 직원은 **88,589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1.4% 늘었습니다.
2. 의료기기가 +2.4%로 가장 많이 늘었고, 의료 AI는 -2.7%입니다(10개사 이상 업종).
3. 연구개발비 증감(I-2)과 직원 수 증감은 대상 회사와 범위(연결·본사)가 달라 서로의 속도를 직접 견주지 않습니다.

그림 III-1

직원 수는 +1.4% — 의료 AI만 줄었다

반기 말 본사 직원 수,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 두 해 값이 있는 회사



출처: 전자공시 2026년 반기보고서 · DART 직원현황 · 분석: MAA

업종	기업 수(개사)	2025 상반기(명)	2026 상반기(명)	증감
제약 · CDMO	96	57,943	58,609	+1.1%
바이오 · 신약	66	11,211	11,375	+1.5%
의료기기	62	14,621	14,971	+2.4%
의료 AI	11	1,648	1,604	-2.7%
헬스케어 인프라	7	1,955	2,030	+3.8%
전체	**242**	**87,378**	**88,589**	**+1.4%**

규모	기업 수(개사)	2025 상반기(명)	2026 상반기(명)	증감
대기업	11	13,131	13,733	+4.6%
중견	86	55,143	55,582	+0.8%
중소	145	19,104	19,274	+0.9%
전체	**242**	**87,378**	**88,589**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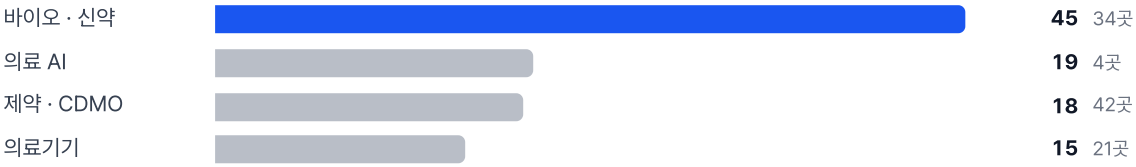
III-2. 직원 1인당 연구개발비

1. 연구개발비가 본사(별도) 기준인 102개사에서 직원 1인당 상반기 연구개발비는 **23백만원**(합계 기준), 회사별 중앙값은 16백만원입니다.
2. 직원 수가 본사 인원이라, 연구개발비가 연결 기준인 회사는 이 표에서 뺐습니다 — 자회사 연구개발비를 본사 인원으로 나누면 과대해집니다.

그림 III-2

바이오 · 신약이 1인당 45백만원으로 가장 많다

직원 1인당 상반기 연구개발비, 백만원 · 연구개발비가 본사 기준인 102개사



출처: 전자공시 2026년 반기보고서(2026년 8월 공시) · DART 재무 API · 분석: MAA

업종	기업 수(개사)	1인당(백만원)	중앙값(백만원)
제약 · CDMO	42	18	10
바이오 · 신약	34	45	43
의료기기	21	15	14
의료 AI	4	19	17
헬스케어 인프라	—	—	—
전체	**102**	**23**	**16**

규모	기업 수(개사)	1인당(백만원)	중앙값(백만원)
대기업	3	37	11
중견	33	19	13
중소	66	31	21
전체	**102**	**23**	**16**

IV. 투자와 성과

2024~2025년 2년간의 연구개발비와, 같은 기업이 같은 기간 공개한 허가·임상·논문·특허를 기업 단위로 잇습니다. 연구개발비만 세는 집계와 이 리포트가 다른 점입니다.

11.14조원 2년 연구개발비 **1,874** 허가 **1,081** 논문

- 상위 10%(26개사)가 연구개발비의 61%, 글로벌 임상의 65%를 차지한다
- 100억원당 허가는 의료기기, 논문은 의료 AI가 가장 많다
- 3상 보유 34개사 · 기술이전 25건
- 공개된 성과가 하나도 없는 회사는 7개사

IV-1. 2년 투자와 공개된 성과 — 업종별

2024~2025년 연구개발비의 56.8%를 제약 · CDMO 97개사가 썼습니다. 100억원당 수치가 가장 높은 업종은 허가 의료기기, 국내 임상 제약 · CDMO, 글로벌 임상 의료 AI, 논문 의료 AI, 특허 의료 AI입니다.

그림 IV-1

같은 돈이 업종마다 다른 성과로 — 허가는 의료기기, 논문·특허는 의료 AI

100억원당 공개된 성과, 업종별 · 2024~2025(특허 2023~2024) · 10개사 이상 업종



출처: 전자공시 · 식약처 · 미국 FDA · ClinicalTrials.gov · PubMed · 특허청, 2024~2025 · 분석: MAA

업종	기업 수(개사)	연구개발비(억원)	허가(건)	국내 임상(건)	글로벌 임상(건)	논문(편)	특허(건)
제약 · CDMO	97	63,322	1,091	231	201	378	1,116
바이오 · 신약	75	32,961	112	46	45	320	961
의료기기	69	12,798	594	4	14	202	1,241
의료 AI	12	1,821	51	0	6	169	235
헬스케어 인프라	7	502	26	3	1	12	83

업종 · 100억원당	허가(건)	국내 임상(건)	글로벌 임상(건)	논문(편)	특허(건)
제약 · CDMO	1.72	0.36	0.32	0.60	1.91
바이오 · 신약	0.34	0.14	0.14	0.97	3.31
의료기기	4.64	0.03	0.11	1.58	10.66

업종 · 100억원당	허가(건)	국내 임상(건)	글로벌 임상(건)	논문(편)	특허(건)
의료 AI	2.80	0.00	0.33	9.28	15.99
헬스케어 인프라	5.18	0.60	0.20	2.39	15.11
전체	**1.68**	**0.25**	**0.24**	**0.97**	**3.60**

업종 1위는 10개사 이상인 업종에서 고릅니다 — 기업이 적으면 분모가 작아 수치가 튑니다. 특허는 출원 후 18개월이 지나야 공개되므로 2023~2024년 출원을 같은 해 연구개발비로 나눴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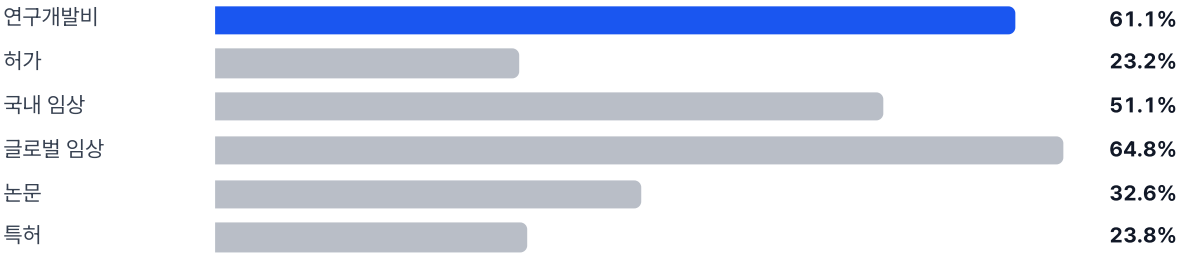
IV-2. 투자의 집중

연구개발비 상위 10%(26개사)가 2년 연구개발비의 61.1%를 썼습니다. 같은 기업들이 글로벌 임상 개시의 64.8%, 국내 임상 승인의 51.1%를 차지해, 비용이 큰 임상 단계일수록 대형사 쏠림이 큽니다. 허가(23.2%)와 특허(23.8%)는 넓게 퍼져 있습니다.

그림 IV-2

상위 10%가 연구개발비의 61% — 글로벌 임상 65%로 더 쏠리고 허가 23%·특허 24%는 넓게 퍼진다

연구개발비 상위 10%(26개사)가 차지하는 비중 · 2024~2025



출처: 전자공시 · 식약처 · 미국 FDA · ClinicalTrials.gov · PubMed · 특허청, 2024~2025 · 분석: MA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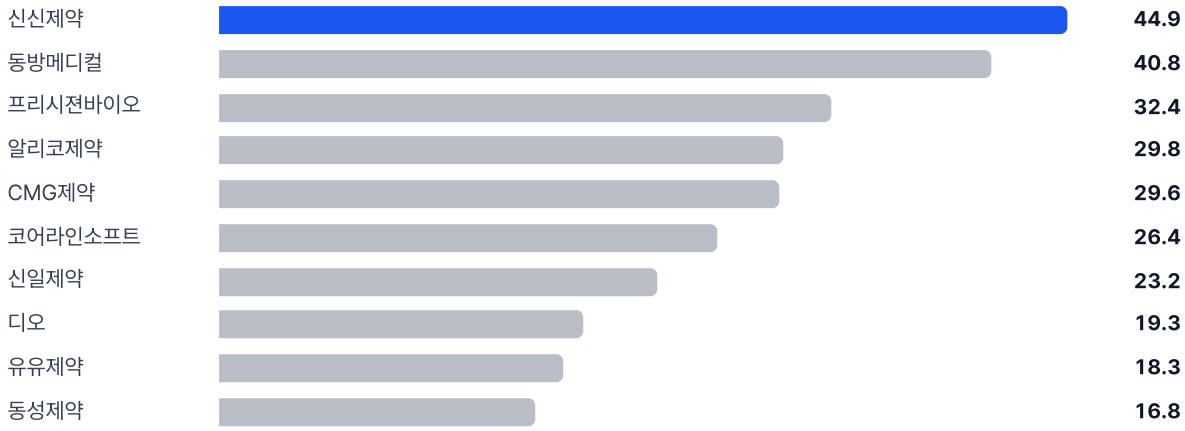
IV-3. 100억원당 공개된 허가·임상

2년 연구개발비가 50억원 이상인 기업 가운데 100억원당 공개된 허가(위)와 국내 임상 승인(아래)이 많은 순입니다. **이 수치는 효율이 아닙니다** — 허가 1건의 무게는 제네릭과 신약, 2등급 인증과 4등급 허가가 다릅니다. 같은 돈이 어떤 형태의 공개 기록으로 나타났는지를 보여 줍니다.

그림 IV-3

신신제약이 100억원당 허가 44.9건으로 가장 많다

100억원당 공개된 허가, 2년 연구개발비 50억원 이상 기업 상위 10개사 — 효율이 아니다



출처: 전자공시 · 식약처 · 미국 FDA · ClinicalTrials.gov · PubMed · 특허청, 2024~2025 · 분석: MAA

순위	기업	2년 연구개발비(억원)	허가(건)	100억원당(건)
1	신신제약	53	24	44.9
2	동방메디컬	59	24	40.8
3	프리시젼바이오	62	20	32.4
4	알리코제약	101	30	29.8
5	CMG제약	176	52	29.6
6	코어라인소프트	61	16	26.4
7	신일제약	86	20	23.2
8	디오	93	18	19.3
9	유유제약	82	15	18.3
10	동성제약	83	14	16.8

순위	기업	2년 연구개발비(억원)	국내 임상(건)	100억원당(건)
1	신신제약	53	2	3.7
2	씨엔알리서치	63	2	3.2
3	알리코제약	101	3	3.0
4	이연제약	77	2	2.6
5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237	5	2.1
6	서울제약	54	1	1.9
7	대한뉴팜	168	3	1.8
8	대원제약	1,011	18	1.8
9	보령	1,247	22	1.8

순위	기업	2년 연구개발비(억원)	국내 임상(건)	100억원당(건)
10	하나제약	293	5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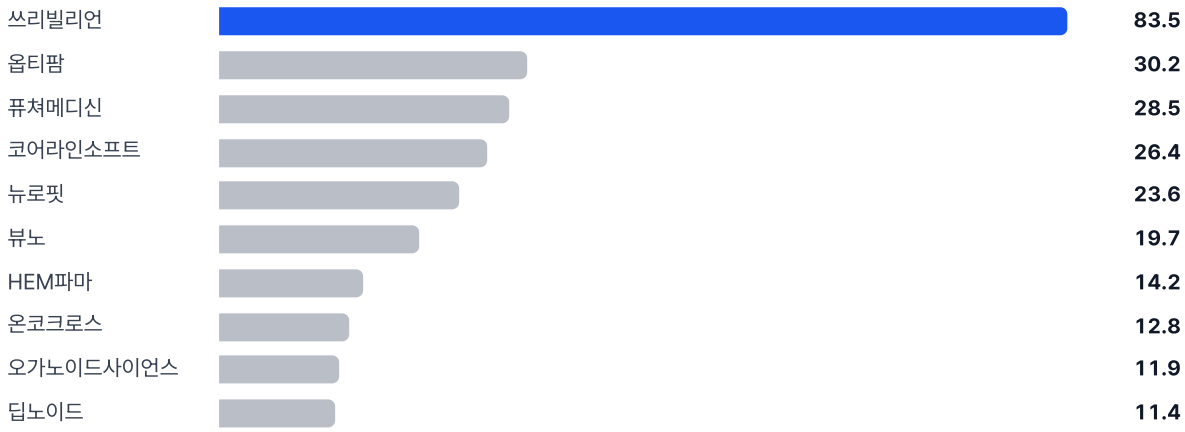
IV-4. 100억원당 논문

같은 기준으로 100억원당 국제 학술지(PubMed 색인) 논문이 많은 순입니다. 의료 AI 기업이 상위에 다수 오릅니다.

그림 IV-4

쓰리빌리언이 100억원당 논문 83.5편으로 가장 많다

100억원당 공개된 논문, 2년 연구개발비 50억원 이상 기업 상위 10개사 — 효율이 아니다



출처: 전자공시 · 식약처 · 미국 FDA · ClinicalTrials.gov · PubMed · 특허청, 2024~2025 · 분석: MAA

순위	기업	2년 연구개발비(억원)	논문(편)	100억원당(편)
1	쓰리빌리언	77	64	83.5
2	옵티팜	89	27	30.2
3	퓨쳐메디신	67	19	28.5
4	코어라인소프트	61	16	26.4
5	뉴로핏	127	30	23.6
6	뷰노	112	22	19.7
7	HEM파마	71	10	14.2
8	온코크로스	63	8	12.8
9	오가노이드사이언스	110	13	11.9
10	딥노이드	123	14	11.4

IV-5. 공개된 성과가 없는 기업

2년간 연구개발비를 공시했으나 같은 기간 허가·임상·논문·특허가 하나도 공개되지 않은 기업은 **7개사, 연구개발비 합계 264억원**입니다(제약 · CDMO 3 · 의료 AI 1 · 헬스케어 인프라 1 · 바이오 · 신약 1 · 의료기기 1). 초기 연구 단계이거나 성과가 해외 파트너 명의로 나오는 경우일 수 있어 실명은 싣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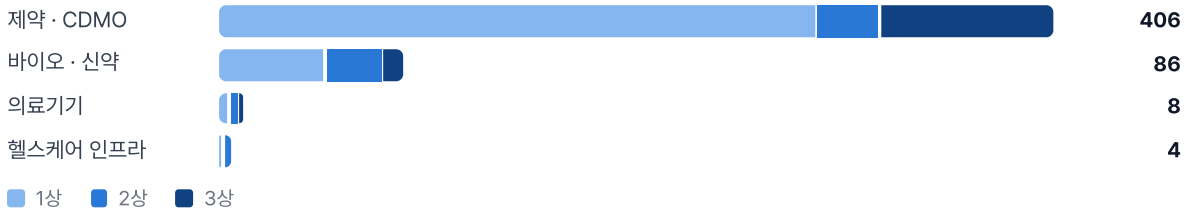
IV-6. 파이프라인 단계 — 임상 1·2·3상

1. 2024~2025년 국내 임상 승인(생동 제외)은 1상 208 · 2상 32 · **3상 43건**, 글로벌 개시는 1상 140 · 2상 29 · **3상 52건**입니다.
2. 복제약을 내기 위한 생동(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은 224건으로 따로 셉니다.
3. 3상 임상을 가진 회사는 **34개사**입니다. 지금 진행 중인 글로벌 3상은 53건입니다.

그림 IV-6a

1상이 대부분 — 3상은 국내·글로벌 합쳐 95건

2024~2025 국내 승인 + 글로벌 개시, 단계별 · 업종별(생동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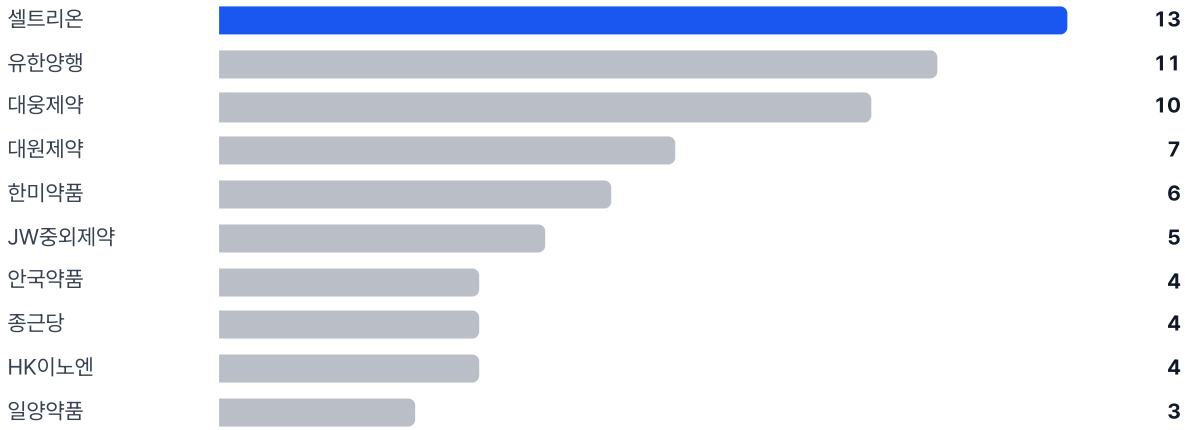


출처: 식약처 임상시험계획 승인 · ClinicalTrials.gov, 2024~2025 · 분석: MAA

그림 IV-6b

3상은 소수에 몰려 있다 — 셀트리온이 13건

2024~2025 3상 임상(국내 승인 + 글로벌 개시) 상위 기업



출처: 식약처 임상시험계획 승인 · ClinicalTrials.gov, 2024~2025 · 분석: MAA

업종	국내 1상	국내 2상	국내 3상	국내 기타	글로벌 1상	글로벌 2상	글로벌 3상	글로벌 기타	생동
제약 · CDMO	177	16	38	0	115	13	47	26	201
바이오 · 신약	27	13	5	1	24	13	4	4	13
의료기기	3	1	0	0	1	2	1	10	10
의료 AI	0	0	0	0	0	0	0	6	0
헬스케어 인프라	1	2	0	0	0	1	0	0	0
전체	**208**	**32**	**43**	**1**	**140**	**29**	**52**	**46**	**224**

1/2상처럼 걸친 임상은 높은 단계로 셉니다. 「기타」는 4상과 단계가 없는 임상(의료기기 임상 등)으로, IV-1 의 국내·글로벌 임상 건수는 기타까지 더한 값과 같습니다. 글로벌은 회사(또는 확인된 자회사)가 의뢰자인 임상만. 진행 중 건수는 산출일 기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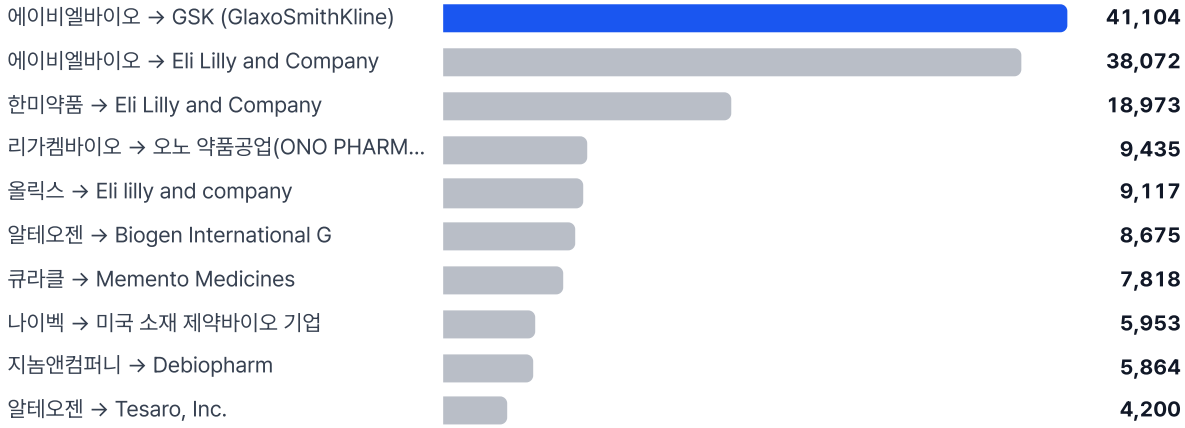
IV-7. 기술이전 — 연구가 돈이 되는 순간

1. 2024년 1월부터 2026년 6월까지 **17개사가 25건의 기술이전(라이선스 아웃)** 계약을 공시했습니다. 기술도입은 23건, 해지는 13건입니다.
2. 총 계약 규모를 원화로 밝힌 15건의 합은 **15.26조원**, 선급금을 밝힌 17건의 합은 5,229억원입니다. 총액을 외화로만 적은 3건(알테오젠 등)은 이 합에 넣지 않았고, 6건은 계약상 금액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3. 총 계약 규모는 대부분 조건부 마일스톤입니다 — 실제로 받는 돈은 선급금과 달성된 마일스톤뿐입니다.

그림 IV-7

에이비엘바이오가 4.11조원 규모로 가장 컸다

총 계약 규모를 원화로 공시한 기술이전 상위 10건, 억원



출처: 거래소 공시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원문, 2024.1~2026.6 · 분석: MAA

공시일	기업	상대방	총 규모(억원)	선급금(억원)
2025-04-07	에이비엘바이오	GSK (GlaxoSmithKline)	41,104	739
2025-11-12	에이비엘바이오	Eli Lilly and Company	38,072	585
2026-06-01	한미약품	Eli Lilly and Company	18,973	1,129
2024-10-10	리가켐바이오	오노 약품공업(ONO PHARMACEUTICAL CO.	9,435	—
2025-02-07	올릭스	Eli lilly and company	9,117	—
2026-03-25	알테오젠	Biogen International GMBH	8,675	300
2026-05-11	큐라클	Memento Medicines	7,818	58
2025-05-28	나이벡	미국 소재 제약바이오 기업	5,953	109
2024-06-03	지놈앤컴퍼니	Debiopharm	5,864	69
2026-01-20	알테오젠	Tesaro, Inc.	4,200	295
2024-05-02	모아라이프플러스	Elevai Labs, Inc.	1,807	15
2024-06-26	이수앱지스	미국 소재 항암제 개발 기업	1,185	42
2024-09-09	이엔셀	Lucy Biotech	259	20
2024-11-07	강스템바이오텍	주식회사 유영제약	140	—

공시일	기업	상대방	총 규모(억원)	선급금(억원)
2025-12-16	신테카바이오	파노로스바이오사이언스	25	5
2025-03-04	앱클론	TCT Health Technology	비공개·외화	—
2024-07-30	알테오젠	Sandoz AG	비공개·외화	—
2024-11-08	알테오젠	Daiichi Sankyo	비공개·외화	280
2025-03-17	알테오젠	MedImmune, LLC (AstraZeneca 자회	비공개·외화	291
2025-03-17	알테오젠	MedImmune Limited (AstraZeneca	비공개·외화	364
2026-03-16	지투지바이오	삼성바이오에피스(주) · 에피스넥스랩(주)	비공개·외화	—
2024-10-10	리가켐바이오	오노 약품공업(ONO PHARMACEUTICAL CO.	비공개·외화	—
2025-12-16	오스코텍	아델과 사노피	비공개·외화	553
2026-06-01	오스코텍	Agios Pharmaceuticals, Inc., (	비공개·외화	375
2025-05-13	와이바이오로직스	주식회사 리가켐바이오사이언스	비공개·외화	—

금액은 공시에 원화로 적힌 것만 씁니다(외화만 적힌 건은 우리가 환율을 고르지 않는다). 변경·승계·중복 공시는 뺐습니다. 같은 상대와 같은 날 맺은 계약이 둘이면 각각 셉니다(리가켐바이오–오노: LCB97 단일 물질 계약과 ADC 멀티타겟 공동연구 계약). 원문을 한 건씩 읽고, 적은 숫자마다 원문 문구가 그대로 있는지 기계로 다시 대조했습니다.

V. 상위 기업 심층

2024~2025년 2년 연구개발비 상위 10개사 — 추이 · 재무 속 위치 · 같은 기간 공개된 성과

4.39조원 10개사 2년 연구개발비 **39.4%** 전체 중 비중

- 셀트리온이 2년간 9,024억원으로 가장 많다

V-1. 셀트리온

셀트리온은 2026년 상반기 연구개발비 2,843억원(전년 동기 +23.8%), 매출 대비 11.2%입니다. 2년간 9,024억원을 썼고 같은 기간 허가 20건 · 국내 임상 18건 · 글로벌 임상 13건 · 논문 36편 · 특허 46건이 공개됐습니다.

그림 V-1

연구개발비 추이 — 2026 상반기 +23.8%

연간·상반기 연구개발비, 억원



출처: 전자공시 2026년 반기보고서(2026년 8월 공시) · DART 재무 API · 분석: MAA

항목	값
업종 · 규모 · 기준	제약 · CDMO · 대기업 · 연결
상반기 매출(억원)	25,387
상반기 영업이익(억원)	7,737
연구개발비 자산화 비중	55.7%
직원 수(명, 반기 말)	3,172
수출 비중	72.6% (주석 기준)

V-2. 유한양행

유한양행은 2026년 상반기 연구개발비 1,222억원(전년 동기 +13.8%), 매출 대비 10.5%입니다. 2년간 5,112억원을 썼고 같은 기간 허가 31건 · 국내 임상 9건 · 글로벌 임상 26건 · 논문 27편 · 특허 55건이 공개됐습니다.

그림 V-2

연구개발비 추이 — 2026 상반기 +13.8%

연간·상반기 연구개발비, 억원



출처: 전자공시 2026년 반기보고서(2026년 8월 공시) · DART 재무 API · 분석: MAA

항목	값
업종 · 규모 · 기준	제약 · CDMO · 중견 · 연결
상반기 매출(억원)	11,662
상반기 영업이익(억원)	757
연구개발비 자산화 비중	0.8%
직원 수(명, 반기 말)	2,145
수출 비중	19.5%

V-3. 대웅제약

대웅제약은 2026년 상반기 연구개발비 1,157억원(전년 동기 +8.5%), 매출 대비 15.7%입니다. 2년간 4,545억원을 썼고 같은 기간 허가 50건 · 국내 임상 17건 · 글로벌 임상 21건 · 논문 27편 · 특허 87건이 공개됐습니다.

그림 V-3

연구개발비 추이 — 2026 상반기 +8.5%

연간·상반기 연구개발비, 억원



출처: 전자공시 2026년 반기보고서(2026년 8월 공시) · DART 재무 API · 분석: MAA

항목	값
업종 · 규모 · 기준	제약 · CDMO · 중견 · 별도
상반기 매출(억원)	7,359
상반기 영업이익(억원)	1,046
연구개발비 자산화 비중	10.9%
직원 수(명, 반기 말)	1,972
수출 비중	20.6%

V-4. 한미약품

한미약품은 2026년 상반기 연구개발비 1,255억원(전년 동기 +18.2%), 매출 대비 14.6%입니다. 2년간 4,388억원을 썼고 같은 기간 허가 23건 · 국내 임상 9건 · 글로벌 임상 12건 · 논문 72편 · 특허 114건이 공개됐습니다.

그림 V-4

연구개발비 추이 — 2026 상반기 +18.2%

연간·상반기 연구개발비, 억원



출처: 전자공시 2026년 반기보고서(2026년 8월 공시) · DART 재무 API · 분석: MAA

항목	값
업종 · 규모 · 기준	제약 · CDMO · 중견 · 연결
상반기 매출(억원)	8,602
상반기 영업이익(억원)	1,847
연구개발비 자산화 비중	7.3%
직원 수(명, 반기 말)	2,424
수출 비중	21.4%

V-5. 삼성에피스홀딩스

삼성에피스홀딩스는 2026년 상반기 연구개발비 1,060억원, 매출 대비 12.5%입니다. 2년간 4,192억원을 썼고 같은 기간 허가 13건 · 국내 임상 0건 · 글로벌 임상 2건 · 논문 22편 · 특허 10건이 공개됐습니다. 연결 범위가 바뀌어(인적분할 등) 기간별 값은 서로 다른 범위의 금액입니다.

그림 V-5

연구개발비 추이 — 연결 범위 변경으로 기간별 범위가 다르다

연간·상반기 연구개발비, 억원



출처: 전자공시 2026년 반기보고서(2026년 8월 공시) · DART 재무 API · 분석: MAA

항목	값
업종 · 규모 · 기준	제약 · CDMO · 대기업 · 연결
상반기 매출(억원)	8,458
상반기 영업이익(억원)	1,493

항목	값
연구개발비 자산화 비중	34.2%
직원 수(명, 반기 말)	10
수출 비중	94.0%

V-6. 녹십자

녹십자는 2026년 상반기 연구개발비 859억원(전년 동기 +3.8%), 매출 대비 10.0%입니다. 2년간 3,466억원을 썼고 같은 기간 허가 36건 · 국내 임상 5건 · 글로벌 임상 3건 · 논문 14편 · 특허 27건이 공개됐습니다.

그림 V-6

연구개발비 추이 — 2026 상반기 +3.8%

연간·상반기 연구개발비, 억원



출처: 전자공시 2026년 반기보고서(2026년 8월 공시) · DART 재무 API · 분석: MAA

항목	값
업종 · 규모 · 기준	제약 · CDMO · 중견 · 연결
상반기 매출(억원)	8,567
상반기 영업이익(억원)	135
연구개발비 자산화 비중	7.6%
직원 수(명, 반기 말)	2,422
수출 비중	32.6%

V-7. 종근당

종근당은 2026년 상반기 연구개발비 1,135억원(전년 동기 +36.6%), 매출 대비 12.3%입니다. 2년간 3,432억원을 썼고 같은 기간 허가 55건 · 국내 임상 16건 · 글로벌 임상 22건 · 논문 7편 · 특허 75건이 공개됐습니다.

그림 V-7

연구개발비 추이 — 2026 상반기 +36.6%

연간·상반기 연구개발비, 억원



출처: 전자공시 2026년 반기보고서(2026년 8월 공시) · DART 재무 API · 분석: MAA

항목	값
업종 · 규모 · 기준	제약 · CDMO · 중견 · 연결
상반기 매출(억원)	9,262
상반기 영업이익(억원)	327
연구개발비 자산화 비중	28.1%
직원 수(명, 반기 말)	2,285
수출 비중	4.0%

V-8. 에스케이바이오팜

에스케이바이오팜은 2026년 상반기 연구개발비 973억원(전년 동기 +19.2%), 매출 대비 20.5%입니다. 2년간 3,356억원을 썼고 같은 기간 허가 0건 · 국내 임상 0건 · 글로벌 임상 1건 · 논문 3편 · 특허 29건이 공개됐습니다.

그림 V-8

연구개발비 추이 — 2026 상반기 +19.2%

연간·상반기 연구개발비, 억원



출처: 전자공시 2026년 반기보고서(2026년 8월 공시) · DART 재무 API · 분석: MAA

항목	값
업종 · 규모 · 기준	바이오 · 신약 · 대기업 · 연결
상반기 매출(억원)	4,753
상반기 영업이익(억원)	1,868
연구개발비 자산화 비중	—
직원 수(명, 반기 말)	278
수출 비중	—

V-9. 리가켐바이오

리가켐바이오는 2026년 상반기 연구개발비 1,371억원(전년 동기 +77.4%), 매출 대비 331.1%입니다. 2년간 3,304억원을 썼고 같은 기간 허가 0건 · 국내 임상 0건 · 글로벌 임상 1건 · 논문 3편 · 특허 33건이 공개됐습니다.

그림 V-9

연구개발비 추이 — 2026 상반기 +77.4%

연간·상반기 연구개발비, 억원



출처: 전자공시 2026년 반기보고서(2026년 8월 공시) · DART 재무 API · 분석: MAA

항목	값
업종 · 규모 · 기준	바이오 · 신약 · 중견 · 연결
상반기 매출(억원)	414
상반기 영업이익(억원)	-1,094
연구개발비 자산화 비중	0.0%
직원 수(명, 반기 말)	190
수출 비중	—

V-10.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26년 상반기 연구개발비 819억원, 매출 대비 3.2%입니다. 2년간 3,090억원을 썼고 같은 기간 허가 0건 · 국내 임상 0건 · 글로벌 임상 0건 · 논문 3편 · 특허 21건이 공개됐습니다. 연결 범위가 바뀌어(인적분할 등) 기간별 값은 서로 다른 범위의 금액입니다.

그림 V-10

연구개발비 추이 — 연결 범위 변경으로 기간별 범위가 다르다

연간·상반기 연구개발비, 억원



출처: 전자공시 2026년 반기보고서(2026년 8월 공시) · DART 재무 API · 분석: MAA

항목	값
업종 · 규모 · 기준	제약 · CDMO · 대기업 · 연결
상반기 매출(억원)	25,780
상반기 영업이익(억원)	11,672

항목	값
연구개발비 자산화 비중	0.0%
직원 수(명, 반기 말)	5,573
수출 비중	83.3% (주석 기준)

시사점

1. **연구개발은 소수에 몰려 있습니다.** 상반기 상위 20개사가 58.2%, 2년 기준 상위 10%(26개사)가 61.1%를 썼습니다. 업종 합계의 증감은 이 회사들의 움직임으로 대부분 설명됩니다.
2. **연구개발비의 32.5%가 영업손실 기업에서 나옵니다.** 이 몫은 그해 영업이익으로 충당되지 않는 지출입니다.
3. **같은 연구개발비라도 회계처리가 다릅니다.** 검산된 회사 전체로는 15.8%를 자산으로 올렸고, 자산화 비중은 업종·회사마다 크게 다릅니다. 이익을 비교할 때 함께 봐야 합니다.
4. **공시된 비율을 그대로 비교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1개사는 회사가 적은 연구개발비율이 공시 양식의 계산식(보조금 차감 전 ÷ 매출액)과 다릅니다. 이 리포트는 한 정의로 다시 계산했습니다.

방법론과 한계

연구개발비 — 전자공시 반기·사업보고서 「연구개발비용 계」, 정부보조금 차감 전, 연결 우선. 공시 비율로 역산하는 등 검산을 통과한 값만 씁니다. 표본이 아니라 검산을 통과한 전수입니다.

의료가 주력이 아닌 기업 제외 — 연구개발비가 회사 전체 금액이라 대부분 의료와 무관한 19개사를 뺐습니다: 안랩(보안 소프트웨어) · 천보(2차전지·디스플레이 소재) · CJ제일제당(식품) · 코스맥스비티아이(화장품 지주) · 코스맥스엔비티(건강기능식품) · 에이치엘사이언스(건강기능식품) · 현대엘리베이터(승강기) · 인탑스(휴대폰·가전 부품) · 한국콜마(화장품 ODM) · 광동헬스바이오(건강기능식품) · 노바렉스(건강기능식품) · 뉴온(건강기능식품) · 파커스(프린터 부품·조명) · 알엔투테크놀로지(통신 부품) · 에스앤디(건강기능식품 소재) · SB성보(농약) · SK이노베이션(정유·배터리) · 원익(석영·반도체 부품) · 우리바이오(건강기능식품).

지주회사 등 — 상장 자회사를 연결하는 10개사(지주회사 9곳과 SK바이오사이언스를 연결하는 SK케미칼)는 자회사 연구개발비가 두 번 세지므로 뺐습니다: 대웅 · 종근당홀딩스 · 녹십자홀딩스 · JW홀딩스 · 제일파마홀딩스 · 일동홀딩스 · 휴온스글로벌 · 동아쏘시오홀딩스 · 한미사이언스 · SK케미칼. 상장 자회사와 겹치지 않는 삼성에피스홀딩스는 포함합니다.

증감 비교 — 두 해 반기 값이 모두 있고 연결 범위·기준이 같은 기업만 비교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25년 11월 인적분할로 연결 범위가 달라져, 삼성에피스홀딩스는 전년 값이 없어 비교에서 뺐습니다.

성과 — 허가: 식약처 의료기기 2등급 인증·3~4등급 허가와 의약품 품목허가, 미국 FDA 510(k)·의약품 승인. 심사 없이 신고만 하는 1등급 의료기기(같은 기간 242건)는 허가로 세지 않습니다. 국내 임상: 식약처 임상시험계획 승인. 글로벌 임상: ClinicalTrials.gov 개시일. 논문: PubMed 저자 소속. 특허: 특허청 출원(국내·해외). 기간은 2024~2025년, 특허만 2023~2024년입니다.

대조와 자회사 — 기업 대조는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격을 걷어낸 상호 완전 일치만 쓰며 유사도 매칭은 쓰지 않습니다. 공시로 지배 관계가 확인된 자회사 명의의 인허가·임상·특허는 모회사에 합산합니다. 논문은 상장사 본체의 저자 소속 표기로만 세며 자회사 소속 논문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다만 연구를 100% 자회사가 수행하는 지주사 삼성에피스홀딩스는 자회사(삼성바이오에피스) 소속으로 셉니다.

오차의 방향 — 해외 법인·파트너 명의 인허가, 수탁기관 명의 임상, 공시로 확인되지 않은 자회사의 기록, 자회사 소속으로 발표된 논문, 의뢰자 표기가 상호와 크게 다른 글로벌 임상은 빠질 수 있습니다(적게 세는 방향). 반대로 특허는 출원마다 세므로 같은 발명이 여러 나라에 출원되면 여러 건이 되고(많이 세는 방향), 상호 완전 일치 대조는 드물게 다른 회사를 붙일 수 있습니다. 글로벌 임상은 이번 판에서 표기 차이로 빠졌던 12개사 465건을 원문 대조로 연결했습니다.

기업 규모 — 각 회사가 정기보고서 「회사의 개요 — 중소기업 등 해당 여부」에 밝힌 값을 그대로 씁니다.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업종별 평균매출액 기준 — 의약품·의료기기 제조 800억원 이하,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독립성),

중견기업은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2조의 기준이며, 대기업은 둘 다 해당하지 않는 회사입니다. 기준을 넘어도 법정 유예기간(3년) 동안은 중소기업이어서 매출이 큰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재무 — DART 재무 API 의 반기 누적 매출·영업이익을, 회사마다 연구개발비와 같은 기준(연결·별도)으로 씁니다. 같은 공시 원문의 XBRL 값과 1,016건이 일치함을 확인했지만, 같은 원천 안의 일치 확인이라 통화·단위 오류는 잡지 못합니다 — 그래서 원화가 아닌 공시는 따로 걸러 냅니다.

연구개발비율 — 연구개발비용 계(보조금 차감 전) ÷ 당기매출액 × 100. 공시 양식이 정한 계산식입니다. 11개사는 회사가 적은 비율이 이 식과 달라(대개 보조금 차감 후로 나눔) 다시 계산한 값을 씁니다. 2026년 9월 첫 판의 업종별 중앙값은 회사가 적은 비율이었습니다 — 이 판부터 같은 정의로 다시 계산합니다.

회계처리·성격별 구성 — 연구개발비 총액이 나온 바로 그 표에서, 항목의 합이 계와 맞은(±1%) 회사만 집계합니다. 정부보조금을 항목에 나눠 배분하지 않습니다.

내수·수출 — 「매출실적」 표의 내수·수출(내수 + 수출 = 합계 = 재무제표 매출액, ±3%)을 먼저 쓰고, 없으면 재무제표 주석의 지역별 매출(국내 / 해외)을 씁니다. 주석의 해외 매출은 해외 자회사의 현지 매출을 포함합니다. 회사별로 어느 쪽인지 CSV 에 밝힙니다.

인력 — 반기 말 직원현황의 본사 인원(기간제 포함)입니다. 합계 줄은 이름이 아니라 구조(나머지 줄의 합과 같은 줄)로 걸러 이중 계산을 막습니다. 연구개발 인력은 정형화된 공시 항목이 없어 싣지 않습니다.

파이프라인 — 국내는 식약처 임상시험계획 승인(2024~2025), 글로벌은 회사가 의뢰자인 ClinicalTrials.gov 등록의 개시일(2024~2025)입니다. 생물학적 동등성(생동) 시험은 복제약을 내기 위한 시험이라 「국내 임상」에서 빼고 따로 셉니다 — 첫 판은 이를 섞어 셌습니다. 1/2상처럼 걸친 임상은 높은 단계로 셉니다.

자금조달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주요사항보고서의 유상증자·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교환사채 발행 결정(2024.1~2026.6, 이사회 결의일). 금액은 공시된 자금 용도별 금액의 합이며 결정 기준입니다 — 실제 납입은 철회·축소될 수 있습니다. 무상증자는 넣지 않습니다. 「조달 ÷ 연구개발비」는 조달 자금이 연구에 쓰였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술이전 — 거래소 공시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을 한 건씩 읽어 새 계약만 셉니다(변경·승계·중복 공시 제외). 금액은 공시에 원화로 적힌 것만 쓰고, 외화만 적힌 건은 금액을 비워 둡니다. 총 계약 규모는 대부분 조건부 마일스톤입니다.

모집단 대조 — MAA 인덱스 422곳 가운데 연구개발비 표를 찾아 검산을 통과한 곳 281곳, 검산을 통과하지 못한 곳 65곳, 연구개발비 공시가 없거나 DART 고유번호가 없는 곳 60곳, 결산월이 다르거나 지주회사라 뺀 곳 16곳입니다. 2026년 상반기 값이 검산된 270곳에서 의료가 주력이 아닌 18곳을 빼 252곳이 됩니다. 통과했지만 상반기 값이 없는 곳(엔솔바이오사이언스, 알테오젠, 메디쎄이, 노브메타파마, 프로젠, 무진메디 등 — 반기보고서 대신 사업보고서를 낸 경우 등)은 2년 지표(IV)에만 들어갑니다. 재무는 원화로 공시한 곳만 씁니다(코오롱티슈진은 미국 달러로 공시해 재무 표에서 뺐습니다).

비교한 국내 리포트 — 「우리가 확인한 국내 리포트」는 한국바이오협회 「상장 바이오헬스케어기업 동향조사」,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KBIOIS) 심층분석·브리프, 언론사의 반기 연구개발비 집계(메디파나 등)입니다. 연결 자회사가 따로 상장된 경우(셀트리온–셀트리온제약 등)는 지주회사가 아니면 각각 세므로 합계에 일부 겹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표 칸 — 기업이 3곳 미만인 칸은 「—」로 둡니다. 한 회사의 값이 그대로 드러나고 대표성이 없습니다. 합계로 나눈 비율은 큰 회사의 무게가 큽니다.

판 이력 — 2026-09-24 첫 판(연구개발비와 공개된 성과 요약) → 2026-10-07 정식판(이 판). 정식판에서 바뀐 것: 재무·인력·내수수출·자금조달·파이프라인·기술이전 장을 더했고, 연구개발비율을 공시 양식의 계산식으로 다시 계산했으며, 국내 임상에서 생동 시험을 뺐고, 글로벌 임상 12개사 465건과 업종 분류 3곳을 바로잡았습니다. 바로잡은 내용은 정정 이력에 남깁니다.

검증 — 순위에 오른 기업의 수치는 수집 원본 파일로 다시 세어 대조했습니다. 연구개발비는 회사가 같은 표에 적은 비율과, 자금조달은 공시 검색 목록의 결정 공시 수와, 기술이전 금액은 원문 문구와 대조했습니다(두 경로). 재무 API 값이 공시 원문의 XBRL 값과 같은지도 확인했지만, 이는 같은 원천의 일치 확인입니다. 오류를 알려 주시면 재산출해 정정 이력과 함께 갱신판을 발행합니다.

부록. 기업별 전체 표

모집단 252개사 전부를 2026년 상반기 연구개발비 순으로 싣습니다. 위 표는 투자·재무, 아래 표는 2년 성과입니다(순위는 같습니다). 매출·영업이익·직원·수출 비중 등 더 많은 열을 담은 기업별 데이터(CSV)는 리포트 맨 위 「기업별 데이터

내려받기」 또는 medicalaialliance.org/reports/rnd-invest-2026h1.csv 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순위	기업	업종	규모	2026 상반기(억원)	전년 대비	연구개발비율
1	셀트리온	제약 · CDMO	대기업	2,843	+23.8%	11.2%
2	리가켐바이오	바이오 · 신약	중견	1,371	+77.4%	331.1%
3	한미약품	제약 · CDMO	중견	1,255	+18.2%	14.6%
4	SK바이오사이언스	바이오 · 신약	대기업	1,224	+80.0%	37.7%
5	유한양행	제약 · CDMO	중견	1,222	+13.8%	10.5%
6	대웅제약	제약 · CDMO	중견	1,157	+8.5%	15.7%
7	종근당	제약 · CDMO	중견	1,135	+36.6%	12.3%
8	삼성에피스홀딩스	제약 · CDMO	대기업	1,060	—	12.5%
9	에스케이바이오팜	바이오 · 신약	대기업	973	+19.2%	20.5%
10	녹십자	제약 · CDMO	중견	859	+3.8%	10.0%
11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약 · CDMO	대기업	819	—	3.2%
12	동아에스티	제약 · CDMO	중견	552	-8.5%	12.9%
13	에이비엘바이오	바이오 · 신약	중소	488	-8.9%	148.6%
14	코오롱티슈진	바이오 · 신약	대기업	480	-11.4%	—
15	메디포스트	바이오 · 신약	중소	440	+28.3%	115.1%
16	JW중외제약	제약 · CDMO	중견	431	-11.5%	10.2%
17	에스디바이오센서	의료기기	중견	429	+18.8%	11.3%
18	HK이노엔	제약 · CDMO	중견	426	+12.8%	8.1%
19	보로노이	바이오 · 신약	중소	417	+95.4%	—
20	제일약품	제약 · CDMO	중견	359	+68.4%	13.0%
21	오름테라퓨틱	바이오 · 신약	중소	352	+62.5%	1,000% 초과
22	보령	제약 · CDMO	중견	286	-10.4%	5.4%
23	씨젠	의료기기	중견	261	-22.2%	9.9%
24	에임드바이오	바이오 · 신약	중소	241	—	84.1%
25	일동제약	제약 · CDMO	중견	239	+38.6%	8.3%
26	파마리서치	의료기기	중견	238	+48.8%	7.3%
27	대원제약	제약 · CDMO	중견	236	-4.5%	7.6%
28	메디톡스	제약 · CDMO	중견	223	+1.1%	17.3%
29	삼천당제약	제약 · CDMO	중견	217	+390.3%	16.0%
30	HLB	바이오 · 신약	중견	217	-15.8%	46.5%
31	휴온스	제약 · CDMO	중견	215	+9.1%	7.4%
32	지아이이노베이션	바이오 · 신약	중소	212	+26.8%	—
33	아이센스	의료기기	중견	207	+39.4%	12.6%

순위	기업	업종	규모	2026 상반기(억원)	전년 대비	연구개발비율
34	올릭스	바이오 · 신약	중소	185	+40.7%	—
35	유나이티드	바이오 · 신약	중견	176	+3.6%	11.6%
36	일양약품	바이오 · 신약	중견	174	+21.5%	13.3%
37	동국제약	제약 · CDMO	중견	173	+15.7%	4.0%
38	큐리언트	바이오 · 신약	중소	165	+64.7%	429.3%
39	삼진제약	제약 · CDMO	중견	163	-3.1%	11.1%
40	메지온	바이오 · 신약	중소	158	+128.6%	375.2%
41	경보제약	제약 · CDMO	중견	152	+42.8%	10.8%
42	오스코텍	바이오 · 신약	중소	150	+20.6%	26.7%
43	부광약품	제약 · CDMO	대기업	149	+27.9%	14.3%
44	클래시스	의료기기	중견	146	+37.3%	7.6%
45	루닛	의료 AI	중소	144	-24.3%	31.5%
46	한올바이오파마	제약 · CDMO	중견	143	-22.4%	16.9%
47	에스티팜	제약 · CDMO	중견	138	+18.8%	7.9%
48	알지노믹스	바이오 · 신약	중소	135	—	1,000% 초과
49	지씨셀	바이오 · 신약	중견	134	-2.4%	16.9%
50	디앤디파마텍	바이오 · 신약	중소	131	+0.9%	1,000% 초과
51	제넥신	바이오 · 신약	중소	128	+19.9%	920.1%
52	인벤티지랩	바이오 · 신약	중소	127	+30.6%	1,000% 초과
53	뷰웍스	의료기기	중견	125	-3.9%	10.3%
54	큐로셀	바이오 · 신약	중소	122	-24.2%	—
55	동화약품	제약 · CDMO	중견	120	-3.5%	4.5%
56	바디텍메드	의료기기	중견	118	+24.8%	12.6%
57	바이오니아	의료기기	중견	113	+54.9%	6.3%
58	한독	제약 · CDMO	중견	112	-1.7%	4.1%
59	신풍제약	제약 · CDMO	중견	109	—	9.2%
60	차바이오텍	바이오 · 신약	중견	108	-11.0%	1.7%
61	삼양바이오팜	의료기기	중견	103	—	15.4%
62	오상헬스케어	의료기기	중견	100	-3.9%	23.8%
63	에이프로젠	제약 · CDMO	중견	99	-67.4%	13.7%
64	휴비츠	의료기기	중견	98	-8.5%	17.3%
65	펩트론	바이오 · 신약	중소	96	+25.9%	280.4%
66	유바이오로직스	바이오 · 신약	중소	95	+46.7%	19.4%
67	하나제약	제약 · CDMO	중견	95	+14.8%	7.7%

순위	기업	업종	규모	2026 상반기(억원)	전년 대비	연구개발비율
68	리브스메드	의료기기	중소	94	—	41.3%
69	휴젤	제약 · CDMO	대기업	87	+21.2%	3.4%
70	안국약품	제약 · CDMO	중견	87	-8.7%	4.6%
71	신라젠	바이오 · 신약	중소	84	+62.1%	165.6%
72	셀트리온제약	제약 · CDMO	대기업	84	+20.0%	3.0%
73	바이오노트	의료기기	중견	83	+17.0%	12.1%
74	디알텍	의료기기	중소	83	+23.7%	12.0%
75	바텍	의료기기	중견	81	+39.3%	6.1%
76	환인제약	제약 · CDMO	중견	80	-31.0%	5.6%
77	CJ 바이오사이언스	바이오 · 신약	대기업	79	-14.3%	469.9%
78	이수앱지스	바이오 · 신약	중견	77	-2.8%	31.7%
79	강스템바이오텍	바이오 · 신약	중소	76	—	527.3%
80	쿼드메디슨	제약 · CDMO	중소	75	+2.8%	—
81	에스바이오메딕스	제약 · CDMO	중소	74	+59.1%	80.5%
82	명인제약	제약 · CDMO	중견	74	—	5.0%
83	코오롱생명과학	제약 · CDMO	대기업	72	+4.4%	7.2%
84	앱클론	바이오 · 신약	중소	71	-4.8%	334.5%
85	광동제약	제약 · CDMO	중견	70	-2.4%	1.4%
86	에스티큐브	바이오 · 신약	중소	70	+50.9%	242.8%
87	영진약품	제약 · CDMO	대기업	68	+15.8%	5.4%
88	셀바스AI	의료 AI	중소	67	+32.1%	11.1%
89	종근당바이오	제약 · CDMO	중견	66	+5.4%	8.0%
90	팜젠사이언스	제약 · CDMO	중견	64	—	7.0%
91	콜마비앤에이치	헬스케어 인프라	중견	61	+23.3%	2.3%
92	메드팩토	바이오 · 신약	중소	59	—	249.3%
93	제노레이	의료기기	중소	59	-3.5%	11.3%
94	지놈앤컴퍼니	바이오 · 신약	중소	59	-8.6%	48.9%
95	미래컴퍼니	의료기기	중소	58	-14.4%	12.9%
96	경동제약	제약 · CDMO	중견	57	-8.6%	5.7%
97	인바디	의료기기	중견	56	—	3.9%
98	티움바이오	바이오 · 신약	중소	55	+11.6%	73.8%
99	제테마	의료기기	중소	53	-53.5%	14.6%
100	휴메딕스	제약 · CDMO	중견	52	+4.7%	5.7%
101	이엔셀	제약 · CDMO	중소	51	—	433.8%

순위	기업	업종	규모	2026 상반기(억원)	전년 대비	연구개발비율
102	대한뉴팜	제약 · CDMO	중견	49	-28.2%	4.4%
103	서흥	바이오 · 신약	중견	48	+7.9%	2.3%
104	퓨쳐켐	제약 · CDMO	중소	48	+87.8%	44.7%
105	대화제약	제약 · CDMO	중견	47	-11.0%	6.0%
106	원텍	의료기기	중견	46	—	5.2%
107	큐렉소	의료기기	중견	45	-5.2%	11.4%
108	넥스트바이오메디컬	의료기기	중소	45	+15.6%	49.2%
109	샤페론	바이오 · 신약	중소	42	-5.0%	1,000% 초과
110	뉴로핏	의료 AI	중소	41	—	325.4%
111	씨어스	의료 AI	중소	41	+62.2%	6.7%
112	지투지바이오	제약 · CDMO	중소	39	+0.4%	202.0%
113	CMG제약	제약 · CDMO	중소	39	-15.0%	7.3%
114	국제약품	제약 · CDMO	중견	39	—	4.2%
115	HLB제약	바이오 · 신약	중소	38	+33.9%	3.0%
116	큐라클	바이오 · 신약	중소	38	—	46.2%
117	덴티움	의료기기	중견	38	-15.1%	3.3%
118	파미셀	바이오 · 신약	중소	37	+7.1%	4.9%
119	대봉엘에스	제약 · CDMO	중소	37	+2.3%	5.9%
120	셀리드	바이오 · 신약	중소	37	-56.1%	69.7%
121	아이엠바이오로직스	바이오 · 신약	중소	37	—	50.8%
122	인피니트헬스케어	의료 AI	중소	36	-2.1%	14.4%
123	메디아나	의료기기	중소	36	—	9.6%
124	알리코제약	의료기기	중견	35	+50.1%	3.7%
125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바이오 · 신약	중소	34	+19.4%	464.4%
126	삼아제약	제약 · CDMO	중소	34	+36.9%	9.3%
127	시너지이노베이션	의료기기	중소	34	—	5.8%
128	아리바이오LAB	바이오 · 신약	중소	33	-27.6%	1,000% 초과
129	코아스템켐온	제약 · CDMO	중소	33	-33.5%	33.4%
130	테고사이언스	바이오 · 신약	중소	32	+85.7%	99.5%
131	바이오솔루션	바이오 · 신약	중소	31	-20.9%	36.5%
132	테라젠이텍스	제약 · CDMO	중견	30	—	2.2%
133	JW생명과학	제약 · CDMO	중견	30	+3.3%	2.6%
134	셀비온	제약 · CDMO	중소	30	+18.4%	274.5%
135	뷰노	의료 AI	중소	30	-0.7%	24.4%

순위	기업	업종	규모	2026 상반기(억원)	전년 대비	연구개발비율
136	노을	의료기기	중소	29	-28.7%	219.1%
137	딥노이드	의료 AI	중소	29	+32.5%	173.3%
138	퀀타매트릭스	의료기기	중소	28	—	202.2%
139	나이벡	의료기기	중소	28	-41.2%	24.3%
140	와이바이오로직스	바이오 · 신약	중소	27	—	149.5%
141	엘앤씨바이오	제약 · CDMO	중소	27	+35.7%	4.8%
142	삼일제약	제약 · CDMO	중견	26	—	2.6%
143	코미팜	제약 · CDMO	중소	25	+43.4%	8.8%
144	CG인바이츠	바이오 · 신약	중소	25	-30.8%	28.2%
145	마이크로디지탈	의료기기	중소	25	—	67.2%
146	HEM파마	헬스케어 인프라	중소	24	+16.3%	25.6%
147	쎌바이오텍	제약 · CDMO	중소	24	-0.1%	8.5%
148	아미코젠	바이오 · 신약	중소	24	-35.2%	9.4%
149	신테카바이오	의료 AI	중소	24	+119.6%	284.9%
150	아이티켐	제약 · CDMO	중소	23	—	8.4%
151	명문제약	제약 · CDMO	중견	23	+8.7%	2.3%
152	코스모로보틱스	의료기기	중소	23	—	91.7%
153	메타바이오메드	의료기기	중소	23	—	4.5%
154	인트론바이오	바이오 · 신약	중소	23	—	58.2%
155	엑셀세라퓨틱스	제약 · CDMO	중소	22	+45.7%	75.6%
156	케어젠	바이오 · 신약	중소	22	+23.7%	5.3%
157	셀바스헬스케어	의료기기	중소	22	+11.5%	14.7%
158	신일제약	제약 · CDMO	중소	22	—	—
159	콜마바이오텍	제약 · CDMO	중견	21	—	9.7%
160	엠아이텍	의료기기	중소	21	—	5.8%
161	쓰리빌리언	바이오 · 신약	중소	21	—	29.1%
162	티앤엘	의료기기	중소	20	+4.5%	2.0%
163	옵티팜	의료기기	중견	20	-3.2%	16.9%
164	안트로젠	바이오 · 신약	중소	20	+13.0%	46.4%
165	이연제약	제약 · CDMO	중견	20	+31.7%	2.8%
166	HLB파나진	의료기기	중소	20	-13.5%	29.1%
167	유틸렉스	바이오 · 신약	중소	20	—	110.7%
168	나노엔텍	의료기기	중소	19	+3.5%	8.5%
169	HLB제넥스	제약 · CDMO	중소	19	—	14.9%

순위	기업	업종	규모	2026 상반기(억원)	전년 대비	연구개발비율
170	삼성제약	제약 · CDMO	중소	19	+17.5%	10.2%
171	아스테라시스	의료기기	중소	19	+35.7%	10.0%
172	바이오플러스	제약 · CDMO	중소	19	+13.8%	3.6%
173	코렌텍	의료기기	중소	18	+1.3%	4.7%
174	바이넥스	제약 · CDMO	중견	18	+183.7%	2.4%
175	디오	의료기기	중견	17	-31.8%	4.1%
176	국전	제약 · CDMO	중소	17	+9.0%	2.3%
177	JW신약	바이오 · 신약	중견	17	—	4.0%
178	씨유메디칼	의료기기	중소	17	+33.6%	4.8%
179	프로티아	의료기기	중소	17	+25.4%	18.1%
180	티앤알바이오팹	바이오 · 신약	중소	16	-27.3%	9.0%
181	동성제약	제약 · CDMO	중견	16	-10.4%	4.0%
182	아이큐어	헬스케어 인프라	중소	16	+10.0%	2.3%
183	젠큐릭스	의료기기	중소	16	—	31.4%
184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제약 · CDMO	중견	16	—	6.9%
185	제이피아이헬스케어	의료기기	중소	16	-23.1%	6.9%
186	온코크로스	의료 AI	중소	16	-12.9%	—
187	비보존 제약	제약 · CDMO	중소	15	-24.7%	5.6%
188	프리시젼바이오	의료기기	중소	15	+0.7%	11.3%
189	코어라인소프트	의료 AI	중소	15	-1.9%	—
190	유유제약	제약 · CDMO	중견	14	-35.3%	2.7%
191	엔지켐생명과학	바이오 · 신약	중소	14	-26.7%	3.7%
192	녹십자엠에스	의료기기	중견	14	-19.5%	2.8%
193	멕아이씨에스	의료기기	중소	14	—	18.8%
194	동국생명과학	의료기기	중견	14	+22.8%	2.4%
195	아크릴	의료 AI	중소	14	—	11.4%
196	라파스	의료기기	중소	14	—	9.5%
197	신신제약	제약 · CDMO	중소	13	-9.1%	2.1%
198	서울제약	제약 · CDMO	중견	13	-7.7%	5.6%
199	플라즈맵	의료기기	중소	13	-23.5%	23.2%
200	중앙백신	바이오 · 신약	중소	13	-5.0%	5.3%
201	진양제약	제약 · CDMO	중견	13	+11.1%	2.0%
202	지에프씨생명과학	바이오 · 신약	중소	13	+36.3%	12.2%
203	진매트릭스	바이오 · 신약	중소	13	-13.8%	23.4%

순위	기업	업종	규모	2026 상반기(억원)	전년 대비	연구개발비율
204	아미노로직스	제약 · CDMO	중소	12	+13.7%	8.9%
205	대정화금	제약 · CDMO	중소	12	+2.2%	1.9%
206	다이나믹솔루션	의료기기	중소	11	-24.2%	15.6%
207	팬젠	바이오 · 신약	중소	11	+51.6%	14.4%
208	헬릭스미스	바이오 · 신약	중소	11	-32.5%	81.0%
209	한국파마	제약 · CDMO	중소	11	-22.6%	2.2%
210	고려제약	제약 · CDMO	중소	11	+11.0%	3.5%
211	세운메디칼	의료기기	중소	10	+215.8%	3.1%
212	경남제약	제약 · CDMO	중소	10	-3.8%	3.1%
213	오텍	의료기기	중견	9	+35.6%	2.1%
214	이오플로우	의료기기	중소	8	—	373.2%
215	비트컴퓨터	의료 AI	중소	8	+11.5%	4.2%
216	엘앤케이바이오	의료기기	중소	8	—	10.3%
217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타	바이오 · 신약	중소	8	+2.5%	6.2%
218	동방메디컬	의료기기	중소	8	-46.7%	1.2%
219	리센스메디컬	의료기기	중소	8	—	28.5%
220	대한약품	제약 · CDMO	중견	7	-40.0%	0.6%
221	일성아이에스	제약 · CDMO	중소	7	+30.5%	2.0%
222	풍전약품	바이오 · 신약	중소	7	-56.1%	2.4%
223	우진비앤지	제약 · CDMO	중소	6	+11.8%	3.9%
224	대한과학	헬스케어 인프라	중소	6	+18.9%	1.5%
225	알파AI	의료기기	중소	5	+17.8%	7.9%
226	드림씨아이에스	헬스케어 인프라	중견	5	-5.5%	1.4%
227	HLB바이오스텝	바이오 · 신약	중소	5	-23.2%	1.7%
228	모아라이프플러스	바이오 · 신약	중소	5	+116.3%	10.4%
229	메쥬	의료기기	중소	5	—	4.9%
230	바이오비쥬	바이오 · 신약	중견	5	+33.1%	2.6%
231	랩지노믹스	의료기기	중소	5	-55.3%	1.4%
232	조아제약	제약 · CDMO	중소	5	-31.3%	1.5%
233	신흥	의료기기	중견	4	-13.6%	0.8%
234	한국유니온제약	제약 · CDMO	중소	4	-17.5%	3.2%
235	텔콘RF제약	제약 · CDMO	중소	4	-5.0%	0.9%
236	하이텍팜	제약 · CDMO	중견	4	+44.1%	0.9%
237	블루엠텍	헬스케어 인프라	중소	3	-55.6%	0.3%

순위	기업	업종	규모	2026 상반기(억원)	전년 대비	연구개발비율
238	화일약품	제약 · CDMO	중견	3	—	0.7%
239	에스엘에스바이오	바이오 · 신약	중소	3	+0.3%	14.7%
240	진원생명과학	제약 · CDMO	중소	3	-67.2%	6.9%
241	휴마시스	의료기기	중소	3	-29.2%	1.8%
242	씨엔알리서치	헬스케어 인프라	중소	3	-75.2%	1.0%
243	대성미생물	제약 · CDMO	중소	3	+36.2%	2.7%
244	티디에스팜	제약 · CDMO	중소	3	-9.6%	1.9%
245	파인메딕스	의료기기	중소	3	-19.9%	4.3%
246	SCL사이언스	의료기기	중소	3	—	1.7%
247	아이빔테크놀로지	제약 · CDMO	중소	2	-38.7%	8.1%
248	그린생명과학	제약 · CDMO	중소	2	-31.6%	0.6%
249	씨티씨바이오	제약 · CDMO	중견	2	-65.7%	0.3%
250	롤링스톤	의료기기	중소	2	—	0.3%
251	제이엠티	의료기기	중소	1	-32.9%	0.1%
252	네이처셀	제약 · CDMO	중소	1	+38.2%	0.6%

순위	기업	2년 연구개발비 (억원)	허가 (건)	국내 임상 (건)	글로벌 임상 (건)	논문 (편)	특허 (건)
1	셀트리온	9,024	20	18	13	36	46
2	리가켐바이오	3,304	0	0	1	3	33
3	한미약품	4,388	23	9	12	72	114
4	SK바이오사이언스	2,620	0	2	1	16	40
5	유한양행	5,112	31	9	26	27	55
6	대웅제약	4,545	50	17	21	27	87
7	종근당	3,432	55	16	22	7	75
8	삼성에피스홀딩스	4,192	13	0	2	22	10
9	에스케이바이오팜	3,356	0	0	1	3	29
10	녹십자	3,466	36	5	3	14	27
11	삼성바이오로직스	3,090	0	0	0	3	21
12	동아에스티	2,516	17	10	16	12	35
13	에이비엘바이오	1,675	0	1	1	8	20
14	코오롱티슈진	2,227	0	0	0	0	5
15	메디포스트	1,293	0	0	0	5	1
16	JW중외제약	1,912	18	12	10	0	51
17	에스디바이오센서	1,660	66	0	0	4	45

순위	기업	2년 연구개발비 (억원)	허가 (건)	국내 임상 (건)	글로벌 임상 (건)	논문 (편)	특허 (건)
18	HK이노엔	1,631	10	5	7	6	34
19	보로노이	765	0	0	3	4	45
20	제일약품	865	21	1	3	0	26
21	오름테라퓨틱	857	0	0	0	0	12
22	보령	1,247	31	22	27	2	3
23	씨젠	1,356	4	0	0	68	115
24	에임드바이오	387	0	0	0	0	14
25	일동제약	460	31	2	1	0	55
26	파마리서치	574	7	0	2	1	10
27	대원제약	1,011	37	18	7	3	11
28	메디톡스	866	1	0	0	12	13
29	삼천당제약	365	8	1	0	1	6
30	HLB	1,012	1	0	0	0	8
31	휴온스	767	41	12	5	11	7
32	지아이이노베이션	687	0	1	1	5	27
33	아이센스	641	28	0	0	1	99
34	올릭스	472	0	0	1	3	14
35	유나이티드	671	9	11	4	4	15
36	일양약품	579	32	7	8	4	2
37	동국제약	606	61	3	1	3	8
38	큐리언트	433	0	0	1	5	8
39	삼진제약	710	26	2	0	2	18
40	메지온	377	0	1	0	0	1
41	경보제약	386	19	6	0	2	16
42	오스코텍	491	0	1	1	0	12
43	부광약품	546	5	0	0	0	0
44	클래시스	391	7	0	4	3	72
45	루닛	724	1	0	1	64	60
46	한올바이오파마	690	3	1	2	0	9
47	에스티팜	458	0	0	0	8	43
48	알지노믹스	261	0	1	2	2	7
49	지씨셀	517	0	1	3	4	20
50	디앤디파마텍	483	0	0	0	3	9
51	제넥신	491	0	1	2	7	14

순위	기업	2년 연구개발비 (억원)	허가 (건)	국내 임상 (건)	글로벌 임상 (건)	논문 (편)	특허 (건)
52	인벤티지랩	377	0	0	1	4	52
53	뷰웍스	525	8	0	0	1	75
54	큐로셀	646	0	1	0	0	6
55	동화약품	499	30	0	0	1	7
56	바디텍메드	378	63	0	0	3	55
57	바이오니아	412	3	1	0	14	10
58	한독	495	7	4	3	3	4
59	신풍제약	306	18	2	0	0	4
60	차바이오텍	423	3	1	1	0	10
61	삼양바이오팜	—	—	—	—	—	—
62	오상헬스케어	410	31	0	0	0	11
63	에이프로젠	1,107	0	0	0	0	2
64	휴비츠	426	3	0	0	3	84
65	펩트론	292	1	0	0	2	8
66	유바이오로직스	285	1	3	2	9	2
67	하나제약	293	20	5	0	1	4
68	리브스메드	249	16	0	0	2	102
69	휴젤	300	1	0	2	2	11
70	안국약품	402	11	5	6	0	4
71	신라젠	302	0	0	0	3	12
72	셀트리온제약	338	19	0	0	1	1
73	바이오노트	308	0	0	0	2	0
74	디알텍	330	22	0	0	2	41
75	바텍	288	9	0	0	0	35
76	환인제약	468	21	4	0	0	5
77	CJ 바이오사이언스	409	0	0	0	20	2
78	이수앱지스	297	0	1	0	3	4
79	강스템바이오텍	267	0	1	0	6	29
80	쿼드메디슨	299	0	0	1	7	5
81	에스바이오메딕스	172	0	0	0	8	3
82	명인제약	286	15	2	0	0	0
83	코오롱생명과학	156	0	0	0	0	4
84	앱클론	278	0	0	0	1	14
85	광동제약	304	12	0	0	4	13

순위	기업	2년 연구개발비 (억원)	허가 (건)	국내 임상 (건)	글로벌 임상 (건)	논문 (편)	특허 (건)
86	에스티큐브	243	0	2	2	1	0
87	영진약품	255	9	3	0	1	2
88	셀바스AI	205	0	0	0	0	6
89	종근당바이오	267	2	0	0	2	19
90	팜젠사이언스	285	9	0	0	0	7
91	콜마비앤에이치	243	0	0	0	1	26
92	메드팩토	301	0	0	0	7	8
93	제노레이	230	7	0	0	0	3
94	지놈앤컴퍼니	269	0	0	1	10	11
95	미래컴퍼니	283	1	0	0	0	30
96	경동제약	246	23	2	0	0	1
97	인바디	241	6	0	0	1	16
98	티움바이오	213	0	0	0	1	4
99	제테마	395	8	0	2	2	15
100	휴메딕스	186	7	1	1	1	2
101	이엔셀	171	0	1	2	12	23
102	대한뉴팜	168	11	3	0	0	5
103	서흥	173	22	0	0	3	13
104	퓨쳐켐	151	0	2	0	4	2
105	대화제약	235	11	1	0	0	5
106	원텍	149	23	0	0	3	15
107	큐렉소	199	1	0	0	1	70
108	넥스트바이오메디컬	148	4	0	0	1	5
109	샤페론	197	0	1	1	11	17
110	뉴로핏	127	6	0	2	30	9
111	씨어스	110	2	0	1	11	33
112	지투지바이오	158	0	0	2	2	43
113	CMG제약	176	52	1	1	2	13
114	국제약품	112	10	0	2	0	1
115	HLB제약	114	11	1	0	0	4
116	큐라클	204	0	0	1	4	3
117	덴티움	168	0	0	0	0	49
118	파미셀	146	0	1	1	3	8
119	대봉엘에스	132	0	0	0	1	25

순위	기업	2년 연구개발비 (억원)	허가 (건)	국내 임상 (건)	글로벌 임상 (건)	논문 (편)	특허 (건)
120	셀리드	328	0	1	0	10	29
121	아이엠바이오로직스	118	0	0	0	0	10
122	인피니트헬스케어	174	3	0	1	1	3
123	메디아나	95	2	0	0	3	15
124	알리코제약	101	30	3	1	0	3
125	오가노이드사이언스	110	0	0	0	13	18
126	삼아제약	116	2	1	0	0	4
127	시너지이노베이션	—	—	—	—	—	—
128	아리바이오LAB	190	0	1	0	0	0
129	코아스템켐온	209	0	1	0	13	19
130	테고사이언스	85	1	1	2	1	2
131	바이오솔루션	143	0	0	0	0	11
132	테라젠이텍스	104	10	1	0	0	20
133	JW생명과학	111	1	0	0	0	2
134	셀비온	123	2	1	1	2	3
135	뷰노	112	14	0	1	22	44
136	노을	188	0	0	0	5	18
137	딥노이드	123	3	0	0	14	24
138	퀀타매트릭스	100	0	0	0	2	3
139	나이벡	147	1	0	2	3	20
140	와이바이오로직스	153	0	0	0	1	13
141	엘앤씨바이오	83	3	0	2	4	5
142	삼일제약	141	6	0	0	1	1
143	코미팜	71	0	0	0	6	2
144	CG인바이츠	159	0	0	0	1	6
145	마이크로디지탈	54	1	0	0	0	12
146	HEM파마	71	0	0	1	10	32
147	쎌바이오텍	90	0	1	0	10	12
148	아미코젠	218	0	0	0	5	19
149	신테카바이오	52	0	0	0	2	27
150	아이티켐	111	0	0	0	0	2
151	명문제약	—	—	—	—	—	—
152	코스모로보틱스	96	3	0	2	0	22
153	메타바이오메드	100	10	0	0	0	3

순위	기업	2년 연구개발비 (억원)	허가 (건)	국내 임상 (건)	글로벌 임상 (건)	논문 (편)	특허 (건)
154	인트론바이오	81	0	0	0	0	19
155	엑셀세라퓨틱스	84	0	0	0	0	6
156	케어젠	131	0	0	0	2	70
157	셀바스헬스케어	74	5	0	0	1	2
158	신일제약	86	20	0	0	0	1
159	콜마바이오텍	114	0	0	0	0	1
160	엠아이텍	77	10	0	0	0	1
161	쓰리빌리언	77	0	0	0	64	13
162	티앤엘	103	0	0	0	3	9
163	옵티팜	89	1	0	0	27	12
164	안트로젠	72	1	0	1	0	3
165	이연제약	77	6	2	0	0	1
166	HLB파나진	87	4	0	0	0	0
167	유틸렉스	241	0	0	0	1	8
168	나노엔텍	81	2	0	0	0	4
169	HLB제넥스	174	0	0	0	0	9
170	삼성제약	55	5	0	0	0	0
171	아스테라시스	59	4	0	0	0	4
172	바이오플러스	63	1	0	0	0	2
173	코렌텍	81	8	0	0	8	23
174	바이넥스	24	9	0	0	0	2
175	디오	93	18	0	0	0	13
176	국전	66	0	0	0	1	6
177	JW신약	66	4	0	0	0	0
178	씨유메디칼	49	1	0	0	0	1
179	프로티아	53	6	0	0	0	4
180	티앤알바이오팹	100	13	0	0	7	35
181	동성제약	83	14	1	0	0	2
182	아이큐어	61	7	0	0	0	19
183	젠큐릭스	87	1	0	0	4	4
184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237	18	5	0	0	0
185	제이피아이헬스케어	93	1	0	0	1	15
186	온코크로스	63	0	0	0	8	7
187	비보존 제약	69	8	1	0	0	0

순위	기업	2년 연구개발비 (억원)	허가 (건)	국내 임상 (건)	글로벌 임상 (건)	논문 (편)	특허 (건)
188	프리시젼바이오	62	20	0	0	2	7
189	코어라인소프트	61	16	0	0	16	22
190	유유제약	82	15	0	0	1	2
191	엔지켐생명과학	80	0	1	0	3	4
192	녹십자엠에스	66	10	0	0	0	1
193	멕아이씨에스	58	9	0	0	0	4
194	동국생명과학	48	11	0	0	0	0
195	아크릴	31	6	0	0	1	26
196	라파스	40	0	0	0	11	18
197	신신제약	53	24	2	0	0	4
198	서울제약	54	8	1	0	0	0
199	플라즈맵	77	5	0	0	6	29
200	중앙백신	57	0	0	0	1	4
201	진양제약	43	13	6	0	0	2
202	지에프씨생명과학	36	2	0	0	6	46
203	진매트릭스	61	2	1	0	1	4
204	아미노로직스	41	0	0	0	0	3
205	대정화금	—	—	—	—	—	—
206	다이나믹솔루션	68	2	0	0	0	7
207	팬젠	34	0	0	0	1	3
208	헬릭스미스	116	0	0	0	3	13
209	한국파마	48	14	2	0	1	1
210	고려제약	42	6	0	0	1	2
211	세운메디칼	21	2	0	0	0	0
212	경남제약	42	22	0	0	0	1
213	오텍	34	0	0	0	0	2
214	이오플로우	29	1	0	0	0	74
215	비트컴퓨터	—	—	—	—	—	—
216	엘앤케이바이오	28	11	0	0	0	3
217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타	33	0	0	0	3	1
218	동방메디컬	59	24	0	0	0	4
219	리센스메디컬	59	5	0	0	2	55
220	대한약품	40	1	0	0	0	0
221	일성아이에스	26	9	0	0	0	0

순위	기업	2년 연구개발비 (억원)	허가 (건)	국내 임상 (건)	글로벌 임상 (건)	논문 (편)	특허 (건)
222	풍전약품	95	0	0	0	0	5
223	우진비앤지	26	0	0	0	8	5
224	대한과학	22	2	0	0	0	0
225	알파AI	20	2	0	0	0	6
226	드림씨아이에스	24	17	1	0	1	2
227	HLB바이오스텝	25	0	0	0	3	1
228	모아라이프플러스	14	0	0	0	1	3
229	메쥬	16	2	0	1	9	5
230	바이오비쥬	21	7	0	0	0	10
231	랩지노믹스	46	10	0	0	2	1
232	조아제약	32	13	0	0	0	5
233	신흥	16	27	0	0	0	0
234	한국유니온제약	22	6	0	0	0	1
235	텔콘RF제약	14	1	0	0	0	0
236	하이텍팜	14	0	0	0	1	0
237	블루엠텍	—	—	—	—	—	—
238	화일약품	15	0	0	0	0	3
239	에스엘에스바이오	—	—	—	—	—	—
240	진원생명과학	55	0	0	0	3	1
241	휴마시스	22	3	0	0	0	0
242	씨엔알리서치	63	0	2	0	0	4
243	대성미생물	—	—	—	—	—	—
244	티디에스팜	13	2	0	0	0	1
245	파인메딕스	11	12	0	0	0	14
246	SCL사이언스	41	3	0	0	1	15
247	아이빔테크놀로지	16	0	0	0	4	5
248	그린생명과학	—	—	—	—	—	—
249	씨티씨바이오	30	7	0	0	0	4
250	롤링스톤	41	0	0	0	0	3
251	제이엠티	6	6	0	0	0	3
252	네이처셀	4	0	1	0	0	1
·	알테오젠	1,161	1	0	0	2	18
·	엔솔바이오사이언스	81	1	0	0	1	9
·	펨토바이오메드	32	0	0	0	0	3

순위	기업	2년 연구개발비 (억원)	허가 (건)	국내 임상 (건)	글로벌 임상 (건)	논문 (편)	특허 (건)
·	퓨쳐메디신	67	0	0	0	19	9
·	한컴라이프케어	46	0	0	0	0	10
·	메디쎄이	20	4	0	0	0	4
·	무진메디	28	0	1	0	2	12
·	노브메타파마	51	0	0	0	3	39
·	프로젠	293	0	1	2	2	2
·	유엑스엔	76	0	0	0	0	15

2년 연구개발비와 성과는 2024~2025년(특허는 2023~2024년 출원)입니다. 「·」 줄은 2년 값만 있고 2026년 상반기 값이 없는 회사로, 2년 합계에 들어 있습니다. 「—」는 두 해 값이 없거나, 공개된 성과가 하나도 없어 실명을 싣지 않는 회사입니다(IV-5).